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연구



2008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서리제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연구

지도교수 민병일

이 논문을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서리제

서리제의 디자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2월



주 심 장 청 건 (인)

부 심 김 철 수 (인)

부 심 민 병 일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	5
1. 미술관 생성배경.....	5
1-1. 프랑스의 미술관 변천.....	6
1-2. 미국의 미술관 변천.....	8
2. 프랑스와 미국의 미술관 교육.....	10
2-1.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	11
2-2. 미국의 미술관 교육.....	15
2-3. 미술관 기능 및 전시역할.....	18
2-4.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역사.....	21
III. 미술관 교육과 평생교육	25
1.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	25
2. 미술관 교육의 변화.....	30
2-1. 자기표현.....	31
2-2. 작품제작.....	32
2-3. 전시작품 감상과 비평.....	33

3. 평생교육의 의미.....	35
4. 평생교육의 중요성.....	36
5.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	39
6. 미술관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	40
7.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43
7-1. 전시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44
7-2. 전시 관련 교육프로그램.....	45
7-3. 독립강좌.....	46
IV.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50
1. 국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51
1-1. 국립현대미술관.....	52
1-2. 덕수궁미술관.....	54
1-3. 서울 시립미술관.....	55
1-4. 삼성미술관.....	58
1-5. 예술의전당.....	59
1-6. 국립중앙박물관.....	60
1-7. 부산시립미술관.....	62
1-8. 대전 시립미술관.....	64
1-9. 광주 시립미술관.....	66
2.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69
2-1. 루브르 미술관.....	71
2-2. 퐁피두센터.....	74

3. 미국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80
3-1. 뉴욕근대미술관.....	80
3-2. 워싱턴국립미술관.....	84
3-3. 클리블랜드 미술관.....	87
3-4. 휘트니미술관.....	92
3-5. 휴스턴미술관.....	95
3-6. 메트로폴리탄미술관.....	98
3-7. 보스턴순수미술박물관.....	102
4. 영국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104
4-1. 테이트갤러리.....	105
4-2. 내셔널 갤러리.....	109
4-3. 스밋소니언 허쉬혼미술관과 조각공원.....	110
4-4. 브리티시 미술관.....	113
4-5. 헤이워드 갤러리.....	115
5. 일본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116
5-1. 일본의 국립미술관.....	117
6. 사례를 통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119
6-1. 각 나라의 미술관 교육.....	119
6-2. 사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문제점.....	122
V. 결론.....	124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표 목 차

표 1.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비교.....	38
표 2. 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40
표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분류.....	49
표 4.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53
표 5. 덕수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55
표 6. 서울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57
표 7. 삼성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58
표 8. 예술의 전당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	60
표 9. 국립중앙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61
표 10. 부산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63
표 11. 대전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65
표 12. 광주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67
표 13. 프랑스 박물관 현황.....	69
표 14. 루브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72

표 15. 풍피두센터 교육프로그램.....	79
표 16. 오디오 투어 프로그램.....	106
표 17. 데이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108
표 18. 영국국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109
표 19. 일본국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118

그림목차

그림1. 미술관 기능의 상관성.....	19
-----------------------	----



1. 서론

여신 뮤즈(muse)에게 바치는 신전을 의미하는 장소에서, 학문적 토론을 위한 장소,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장소로 기능하였던 미술관(museum)은 15세기에 세속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중산 상인계층들이 다양한 대상물들을 일정 공간 안에 모아 자신들의 위상을 나타내 보이고자하는 현시의 장소에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근대성의 개념과 함께 유럽에서 자리 잡은 근대적 미술관은 오늘날 미술관의 모습에 그 규범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미술품들을 일정 공간 안에 수집하던 아취(雅趣)서 비롯하여 국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공공에게 개방하는 오늘의 미술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미술관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하는 사회변화가 많이 대두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관람자가 단순히 지식과 경험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빈그릇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러한 사고는 최근에 이르러 관람자가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위들이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장치에 의해 적절한 전략들이 요구된다.

미술관은 지금까지의 감상위주의 관람형태에서 모든 조형 활동과 제작재료 등을 통한 교양을 쌓고 형(形)과 색의 취급법과 지적교과로서의 이론, 형의문법, 재료와 제작법 등의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람자의 식견을 넓히고 조형(미술)교육에 앞장서는 경향으로 변화되

어지고 있다. 미술관 환경에 대한 지식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에 따른 교육적 전략들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게끔 되었다.

1. 연구 목적

미술교육이란 기존의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을 통한 보통교육을 시발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작품제작현장을 통한 미술영역전체를 아우르는 사고의 영역이나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활동이나 협동작업도 중시한다. 즉, 미에 대한 대상을 접하고 실재로 체험하는 환경에서 개성을 살려 창의성을 키우는 표현활동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술교과에서 체험적 활동을 강조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고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강조됨으로써 생활 속에서 미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술관 교육은 전문인력 확보 및 풍부한 자료와 공간과 함께 아주 다양한 접근 방법이다. 이 다양성은 학교교육의 한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도 중요시 여긴다. 사회적으로 미술관이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미술관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취향에 눈높이를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관이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또는 학교교육과

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내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연구와 함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미술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국내외 미술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미술관 프로그램 연구의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최근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일반인, 교사,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 교육 프로그램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교육 프로그램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역사 및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정리해 본다. 또한 미술관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여 본다.

둘째, 평생교육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사회교육기관인 미술관 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본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을 알아본다.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미술관 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학교교육과 미술관 교육과의 관계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다.

넷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비교·분석해봄으로써 미술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다섯째, 국내외 미술관 홈페이지 자료를 검색하고 미술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검색하고, 선행연구와 미술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본다.

여섯째, 미술관을 방문하여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활동 때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과 교육과정 등을 알아보고, 실제 결과물을 확인하여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윤택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 환경을 조성시킨다,

II.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미술관 생성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수많은 문화를 생성 시키고 소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수많은 문화유산은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많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술관은 이 문화유산들을 보관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 출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미술관은 일상생활 또는 종교에 기원을 두는 도구나 물건의 수집으로부터 생겨났다.

석기시대부터 원시인은 이미 어떤 법칙에 따라 제작하거나 재구성한 물건을 자신의 주변에 모아 놓았는데, 이는 인간의 소유 본능의 형태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어 'Museion'과 라틴어 'Museum'인 미술관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 철학의 여신 뮤즈(muse)에게 바치는 제사의 장소인 신전을 의미하였으며, 후에 서적들을 장기간 보관하는 장소로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Ptolemy Philadelphus)은 부왕(父王)의 뜻을 이어 궁전에 각종 철학자의 조상이나 진귀한 동물과 예술품 등을 모아 두고 그곳을 미술관이라 부르게 했으며, 뮤즈 여신에 대한 경배뿐만 아니라 문예와 철학을 연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¹⁾

이런 고대의 미술관의 형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술관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당대의 권력관계들과도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런 현상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신흥중산계층이 자신의 부를 현시하기 위해 진귀한 물건들을 일정공간에 수집하면서 더욱 활성화된 미술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미술관의 생성과 발전은 인류 문화의 발달과 동시에 문화유산을 수집,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 프랑스의 미술관 변천

프랑스 대혁명은 미술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적 이상들은 미술관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를 가져와 미술관은 계몽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여겨졌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소장품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예술품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재산(treasure)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종교적 성전이나 귀족들의 궁전(place)에 소장되었던 미술작품들이나 오브제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공개적인 전시 형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1789년 법령으로 새로운 미술관의 건립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1792년 루브르와 오래된 팔레 루아이얄의 갤러리들이 건립되었다. 이

1)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p.10

것들은 ‘musee francais’ 또는 ‘musee national’ 등으로 불리어졌다. 마침내 루브르는 1793년 8월 10일 프랑스의 군주제(monarchy)가 몰락하는 것을 처음 기념하기 위해 개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미술관의 성격을 가진다.

첫째, 미술작품의 공공적인 성격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왕, 귀족, 교회, 부로 등 특정 권력층의 소유물 또는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들이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공공의 문화적 재산’으로 인식된 것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르러서다.

둘째, 공공문화재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당초 루브르 박물관은 화가들의 모사 활동이나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장소로 관객들에게 공개되었던 반면, 일반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거나 교육을 받는 장소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루브르박물관은 10일중 2일간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들의 감상을 위해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장품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미술품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공공성을 가지면서 보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이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은 미술관의 기존 폐쇄성을 타파하고 미술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이것은 미술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의 효시로서 서구 유럽에서 대중을 위한 미술관 개방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후에 식민지 정책은 유럽 미술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량의 수집품들은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정책에 동조하게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된다.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계속된 제국주의정복에 따르면,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식민지를 철저히 통치하기 위해 그들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게 하였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식민지의 문화재 발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열광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점령과 수집경향은 미술관을 대형화시켰는데, 이이기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독일의 베를린국립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성립되었다.²⁾

1-2. 미국의 미술관 변천

미국의 초기의 미술관에 대한 개념은 필라델피아, 보스턴, 찰스턴에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대상물들과 예술작품들로부터 출발한다. 1780년에 1800년까지 미국에서의 초기 미술관들은 새로운 시민을 위한 정신적 성장을 위해 건설되었다. 이 당시 미국 미술관을 형성하고자 하던 계층들은 상류계층(respectable class)들이다. 이 상류 계층들은 그들의 이익과 이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피지배계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사용하였다.

2)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서울 예경, 2000, pp.16~18

1870년대 이전 미국의 미술관들은 유럽의 미술관 문화를 모범으로 삼으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미술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870년대에 이르러 ‘전문성’과 ‘대중교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미국의 미술관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

영국의 사우스켄싱턴미술관³⁾은 미국 미술관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미술과 산업을 연결시키고자 노력 하였던 보스턴과 메사추세츠주의 미술 교육프로그램 형성에도 기여 하였다. 실제로 여러 문헌들은 19세기 사우스켄싱턴미술관이 미국의 국립미술관의 설립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사우스켄싱턴테프트(Charles P. Taft)는 신시네티에서 민주사회에서의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사우스켄싱턴미술관을 미국미술관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1870년대에 건립되었던 미국의 국립미술관들은 그 전통을 특히 영국의 사우스켄싱턴미술관에 두고 있다. 사우스켄싱턴미술관은 산업혁명이후 영국의 제조 산업에 종사할 디자이너들에게 기술적 훈련들을 제공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이다. 이러한 목적들의 전망들은 당시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3) 사우스켄싱턴미술관은 영국의 수공업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미술관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산업미술들의 훈련프로그램들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 장식물들의 높은 질과 장인정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미술관의 특징은 미술교육과 산업과의 강력한 관련성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 있다.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서울, 예경, 2001, p.22

있던 미국의 미술관들이 영국의 사우스켄싱미술관의 전통을 의지해 있지만, 미국 미술관은 그 나름대로 유럽의 사회문화적 배경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⁴⁾

2. 프랑스와 미국의 미술관교육

1980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는 문화이론, 예술행정 및 경영 그리고 미술교육의 영역에서 미술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술교육분야에서 미술관 교육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많은 미술관 실무자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영역에서 학자들이 미술관을 교육의 장으로 논의하는 것은 전통적 개념의 미술교육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전통적 개념의 미술교육은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 관심을 국한시켰지, '미술관'과 같은 대안적 사회기간의 교육적 기능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술교육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변화 된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1985년과 1989년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미술교육 심포지엄 이후, 미술교육 이론가들은 그들의 관심을 학교라는 기존의 제도를 넘어서

4)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서울, 예경, 2001, pp.23~36

서, 미술관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미술관의 현대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철학적 담론(談論)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술관이 대중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미술관 교육’이라는 이론적 쟁점의 대두이다.

‘미술관 교육’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탄생하였다는 견해가 근래에 와서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 사관에 입각해서 미술관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견해로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럽의 미술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나 엘리트 계층에게 소장품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술작품들을 소장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미술관 개념이 미국에 인식된 이래, 미국의 미술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대중들에게 미학교육(aesthetic education) 그리고 미술교육(art education)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미술관의 기본적 임무로 정하게 된다.⁵⁾

2-1.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

2-1-1. 학교와 미술관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관이 펼친 교육 활동은 미술과 문화에 대한

5) 앞의 책, pp.47~48

대중의 용이한 접근에 기여하였다. 프랑스에서 이 같은 진보는 일반 교육의 범위 내에서 미술교육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 80년대 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이 움직임은 학생들을 위한 문화 강좌라든가 미술실기 작업실 운영, 학교교육에 작가 참여시키기 등 교사, 미술가, 문화전문가가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실행함으로써 진보되어 갔다.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오랫동안 주변학과로 인식되어 왔고 대체로 데생과 회화의 보수적인 수련에 머물러 왔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급진적인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창조성이 강조되고, 현대미술 또는 작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프랑스 문화부는 교육부와 함께 2000년 12월 ‘모두를 위한 예술적 문화적 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예술적 및 문화적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전문학교를 장려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미술센터 등 문화 예술과 관련된 약 6,000여 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당시 총 5백5십만 프랑의 예산이 투입 된 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새로운 과학기술을 익히고, 둘째, 예술가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현대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셋째, 거리의 미술이나 서커스 등과 같이 ‘벽을 넘어선(hors les murs)’ 예술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2-1-2. 미술관 교육의 발달

박물관 업무는 문화부 박물관국에서 담당한다. 박물관측은 (일반감독, 소장품, 박물관 기술·건축·시설과 전문 인력과 대중·교육 및 문화보급 활동과 재정·행정·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임무부서)의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박물관 정책을 문화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박물관 건립정책과 소장품 확대 정책, 전문인 양성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박물관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중·교육 및 보급과에서 담당한다.

이 부서에서는 박물관의 교육 및 보급 활동이 다양한 대중들을 위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이 대중들을 맞이하고 정보를 주는데 있어서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하며 감독하고, 시청각 도구와 이미지 출판을 통해 문화를 보급하는데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 발달은 앞서 살펴 본 대로 교육부와의 연계 협력 속에서 더욱 발전함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은 ‘모두를 위한 예술적 문화적 교육 5개년 계획’의 중심부에서 2001년 새 법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중의 지식, 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다.’는 소임을 위해 나름대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확대시키고 강화하게 되었다.

미술관의 교육 업무는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 방법과 자재개발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술관이란 일차적으로 작품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미

미술관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작품과의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공간으로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감상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도록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교육이 학교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필연적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명한 사실이다. 학교의 역할과 미술관의 역할의 상보성은 오늘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능동적이고 지극히 다양한 협력관계 속에서 확인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박물관이 접목을 시도한 것인데, 박물관 씨디롬(CD-Rom) 제작, 사이버 박물관 구축, 박물관 소장품 정보화가 이뤄졌다.

1995년 7월 연 루브르 박물관 홈페이지는 '루브르 박물관의 인터넷 발전 프로그램 2002-2005'에 의한 것으로 연간 6백만 명이 방문하며, 영어, 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제공되며, Credit Lyonnais 와 Accenture의 매세난 지원에 힘입어 6.5백만 및 8백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①루브르의 소장품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감상 할 수 있게 하고 ②소식지 메일이나 대화형식으로 홈페이지 방문관람객과 친밀한 관계 형성 ③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둘 수 있는 교육적 내용 강화 ④ 다른 링크를 통한 타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박물관 교육이 사이버 상으로 확대되어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박물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2. 미국의 미술관 교육

2-2-1. 뉴딜정책과 미술관 교육

경제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미술관 교육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뉴욕 근대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1935년경 뉴욕근대미술관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뉴욕근대미술관은 그 전에 전시회들을 수동적 교육기능으로 실현하고자 하던 노력에서 탈피하여 교육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 배경의 변화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뉴욕근대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은 경제대공황(Great Economic Depression)이다. 미국경제의 뿌리 깊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경제 대공황은 1929년 10월 뉴욕 증시의 폭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경제 대공황의 위기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1932년 프레드릭 루즈벨트 대통령을 실업자들을 다루는 행정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정부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예술 후원자가 되었다.

실제로 미국 미술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술관이 작품들을 소장하는 소장의 장소로 기능하던 것에서 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이 강조되었던 것은 경제적 이유였다고 보아지고 있다.

대부분 미술관의 예산과 자금들이 모두 정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정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들과 요구 사항들에 따라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했다.

2-2-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관 교육

1950년대 중반, 뉴욕근대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기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미술관의 교육 부서를 지배하였던 진보주의 교육이상은 미술관 교육부서에 포함되었던 연구자들에 의해 도전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들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50년대 중반 미국은 교육사상, 사회정치 환경, 그리고 미술이론의 분야에서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문화의 중심은 뉴욕이 되었다. 미술은 점차 '오브제화'되어 가고, 현대 미술에 있어서 회화의 평면성 요소들은 3차원적인 오브제의 문제로 변해갔다. 작가의 행위와 경험을 강조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에 의해 그 움직임이 대체되었다.

뉴욕근대미술관은 사회와 문화 변동에 부응하여 미술관 교육의 정의를 바꾸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미술관 교육의 방향 전환은 근대미술관에서 뚜렷하게 보여 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이전의 모형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기에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전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근대미술관의 교육 부서를 지배하였던 진보주의 교육이상들은 근대미술관 조직 내에 존재하였던 미술교육위원회(Committee on Art in American Education and Society)'를 창설하였다.

이 단체는 미술교육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순순한 분위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곳으로, 창의적 미술교육을 옹호하는 단체이다.

뉴욕근대미술관에서 다미코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개발, 성인심리학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195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근대미술관이 건립 된지 25년이 지난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게 되었고 교육패러다임도 변하게 되었다. 진보주의 교육연합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교육이상들이 추구되어져 교과목들의 모델들을 제공하였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들이 변화함에 따라, 미술관에서의 교육적 실천들은 진보주의적 교육의 철학에서 차츰 학문 지향적 미술교육이론으로 대체되었다. 특별히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미술사적인 접근방식들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상들은 낡은 패러다임이 되었다.

2-2-3. 예술후원방식의 변화

1965년 연방정부는 국가의 문화적 기관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게 되면서,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Fund)과 국립인문학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Fund)이라는 공식적 지원형태를 만들었다.

NEA와 NEH는 미술관 재정에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미술관에 NEA와 NEH가 지원한 기금들을 통계로 살펴보면, 전체의 재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비율을 가지고 지원되었지만, 이 지원들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1년부터 75년 사이에, NEA와 NEH의 미술관에 관한 지원 사항은 국립예술진흥기금의 미술관 프로그램에서 500개의 기관에 2천6백7십4만여 달러를 수여하였다. 500여개의 기관 중에는 80%가 미술관이고 20%가 과학과 역사박물관이다.⁶⁾

3. 미술관의 기능 및 전시의 역할

국제박물관 협회(ICOM)⁷⁾에서는 미술관의 기능을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미술관은 역사적 자료와 정신적·물질적 문화의 흔적들인 예술작품, 수집품, 자연물의 표본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개념에 기초한 미술관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전시되는 소장품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들의 연구를 통하여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소장품들은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 무작위로 정리되거나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작업(classification)’에 의해 구성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소장품들은 사적인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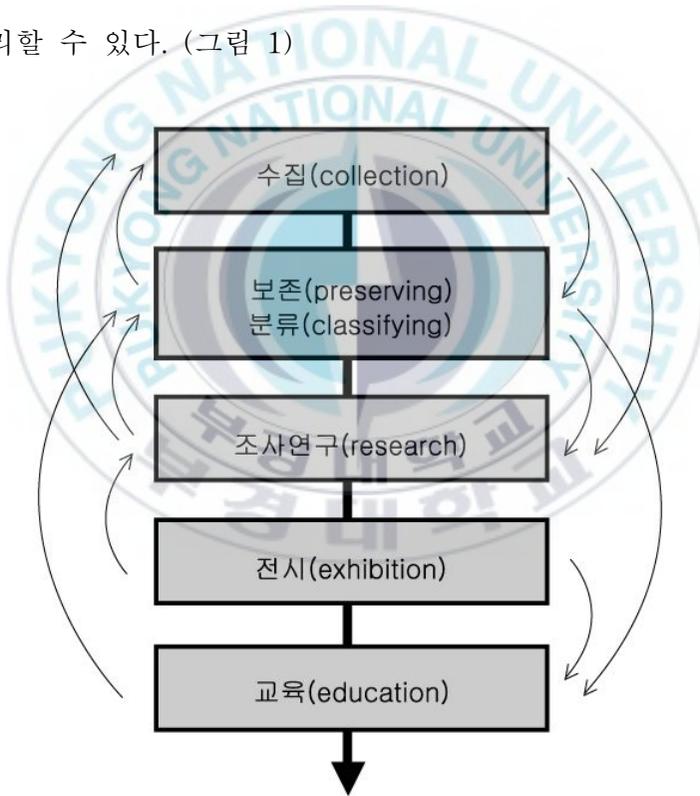
6) 앞의 책, pp.66~136

7) 국제박물관협회는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으로 칭하며, 일반적으로 ICOM으로 표기한다.

라 한 개인의 의미를 넘어 일반 시민과 대중을 대표해서 소유되고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장품들은 가능하다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근대이후에 성립된 미술관들을 살펴보면, 수집(collection), 보존(preserving)과 분류(classifying), 조사연구(research)와 전시(exhibition), 그리고 교육(education)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미술관 기능의 상관성

미술관에 전시된 실제 예술작품들이나 유물들을 통해 일반 관객들은 ‘지식(knowledge)’이란 것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뮤즈라는 여신에게 바쳐지는 고전적 기관의 의미에서 벗어나 ‘배움(learning)’에 기여할 수 있는 근대적인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술관에서 전시란 예술품을 보는 것이 단순히 ‘물건(thing)’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들이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형태로 위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미술관 전시회의 역할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해당기관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는 지식의 함의를 도출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미술관이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미술관은 미술 그 자체를 위한 공간이가 미술문화 향유자를 위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문화보호의 임무와 함께 큐레이터와 전문 인력들이 연구하고 조사하여 전시와 교육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해석과 가치부여를 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술을 즐기게끔 도와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⁹⁾

8)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pp.13~14

9) 국립현대미술관,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서울, 2005, p.2

4. 미술관 교육의 개념과 역사

과거의 미술관은 미술품의 수집만을 강조하였으나 현대의 미술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미술품의 수집뿐만 아니라 보호·전시·교육의 역할까지 병행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술관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술관이 일부 지적 부유층의 취미를 위한 공간에서 일반 대중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술관은 관람자의 원활한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1991년 개정된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¹⁰⁾

그러므로 미술관 교육이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당 미술관이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 전만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에서의 모든 활동, 즉 소장품전시, 전시기획, 교육 프로그램, 특별행사 등 관람객이 미술관에 와서 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 미술,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로 미술관이라는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0)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서울, 문화관광부, 1996, p.6

미술관은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거에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일반대중의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의 장이 된 것이다.

즉,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의 뜻으로 현대의 미술관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한 국민교육, 소수를 위한 취미교육이 아닌 국민전체를 위한 정서교육, 학교교육에서 벗어난 국민의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의미한다.¹¹⁾

미술관 교육의 역사는 미술관 개념의 변천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미술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어 왔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미술관은 대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미술관은 비영리적이고 사회봉사적인 기관으로, 초기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특정인들이 그들의 취미와 흥미를 충족시키고자 제한된 물건들을 수집하여 소장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적 목적의 미술관 또는 박물관들이 생기게 시작했으며 미술관이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박물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미술관이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학문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나, 현대적 개념의 미술관의 출현은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가 혁명적인 이념으로 설립한 루브르 박물관(The Louver)이 점

11) 유근준, 국립현대 미술관과 미술교육, 현대 미술관 연구 제3집, 국립현대미술관, 1992, p.52

차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¹²⁾

1984년 AAM(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AAM)의 연구에서는 미술관 ‘교육(education)’을 ‘학습(learning)’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989년 개정된 국제박물관협회 ICOM의 정관 제2조(정의)에서는 미술관/박물관을 “박물관은 연구와 교육·향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연구·전달·전시하며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이 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미술관/박물관을 위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 1992년 AAM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결의문에서 새 시대의 미술관의 사명으로 교육을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어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교육이 이루어져왔다. 교육의 시작은 1978년에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가 창설되어 일반인들에서 보다 쉽게 미술을 이해시키고 미술의 생활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대미술아카데미’를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86년 섭외교육과를 두면서부터이다.

현대의 미술관의 방향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위한 정적인 창고에서 관람객의 교육, 체험을 위한 활동적인 공간으로, 기존의 ‘자신들을 위한 공간’에서 관람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외부 지향적이고 관람객

12)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논문집 제1호, 1998, p.9

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을 기존의 미술관의 성격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하는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아일린 후퍼 그린힐 (E.H. Greenhill)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존(conservation)'이라는 과거의 개념이 이제는 '협업(collabor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함께 역할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연구, 전시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의 장이야 한다는 의식은 1845년 영국에서 제정한 박물관법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 이후로 20세기의 미술관은 차원을 달리하여 전시 자체도 일종의 교육의 목적을 내포하여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미술관들이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소장품의 일방적인 전시만이 아닌 관람객들과 교류를 통하여 '외부 지향적'이며 '관람객 중심의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관의 존재의미는 더 이상 '사물(object)'이 아닌 '관람객(visitor)'이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관람객이 와서 보고, 느끼고,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미술관과 관람객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것에 부합한다.¹³⁾

13) 유광숙, 미술관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p.13

III. 미술관 교육과 평생교육

1.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말에 들어 미술관의 교육기능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면서 전시와 관람객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의해 관람객 중심의 미술관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찾기 위한 노력은 미술관 교육자와 큐레이터들의 협동에 의한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산출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의 확대된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는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의 미술관 교육 분과가 밝힌 아래의 기본 이념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미술관의 공공 서비스 임무의 중심은 교육기능으로 수집, 전시, 보존을 포함하는 미술관의 모든 활동에 우선하여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미술관은 여러 계층의 관객을 모두 수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장소가 되어야하며 그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미술관은 지역사회내의 개인, 단체조직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도적 입장에 서야한다.¹⁴⁾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소재가 혼합된 참조물이 전시되어

14)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서울, 문화관광부, 1996, p.48

있는 공간인 미술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특정 의도나 주제를 미술품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활동인 전시와, 둘째, 전시물로 관람객과 소통하여 전시물의 가치와 의미의 이해를 확대하는 대중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시란 개념을 중심으로 전시물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술관의 교육활동은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해석하고 전시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술품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미술의 지식과 정보를 얻고, 관람자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시대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미술관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미술작품 자체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미술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의 체험은 학교 공간에서의 슬라이드, 사진 등의 복사작품으로 수업을 했을 때와는 다른 감동과 문화공간의 이용 습관을 길러준다. 실물작품을 통한 수준 높은 질적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관 자료의 특성은 어떠한 자료보다 학습 자료로 교육적 가치가 크다.

둘째, 미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미술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의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러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예술운동이나 문화현상은 그 이전의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반말에서 비롯됨과 동시에 당대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이처럼 작품의 이해는 한 작가의 작품 이해를 넘어서 그 작가가 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정

치·경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미적 안목을 신장시킬 수 있다. 미술관에 있는 자료는 생명력이 있는 진품으로 성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예술적 감흥, 미감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사오과 미적 안목을 신장시킬 수 있다. 즉, 미술관교육은 작품에 대한 느낌을 실감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넷째, 통합학습이 가능하다. 미술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 작가의 생애 등의 조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술, 역사, 사회, 국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다섯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 학습활동과는 다르게 미술관 학습활동은 학부모를 자연스럽게 참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미술관을 학교교육에 끌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함께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다.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대다수의 미술관들은 독립된 교육부서와 교육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술관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학생집단이 포함되고 있다.

미술관교육은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미술관의 성격과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 미술관 사업을 하나로 보는 사례도 있다.

미술관의 교육 가운데 미술관 전시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내, 좌담, 강연, 강의, 강

좌, 세미나, 심포지움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설 운영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전문가의 설명, 이론 중심의 대화가 특징이며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다음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된다.

(가) 안내(tour)

일반 관람객을 위한 소장품의 해설안내(guided tour), 시각 장애자를 위한 특별안내(touch tour), 녹음 안내(recorded tour), 미술관 안내(gallery tour), 특별 전시안내(special subject tour), 특별예약 안내(special appointment tour), 외국어 안내(scheduled tour in foreign language)등이 여기에 속하며 간단한 안내용 인쇄물, 책자, 녹음기, 휠체어 등이 제공된다.

(나) 좌담(talk)

공개좌담회(public gallery talks), 주말좌담회(weekend gallery talks), 일요좌담회(sunday gallery talks), 작가와의 대화(talks with artist)등이 여기에 속하며 미술관 교육담당자, 초청인사, 전시작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담이 일반적 형태이다.

(다) 강의(lecture)

일반강의(public lecture), 특별강의(special lecture), 슬라이드강의(slide lecture), 영상강의(film/video lecture), 점심강의(lunchtime lecture), 일일강의(regular daily lecture), 주간강의(daytime lecture), 야간강의

(evening lecture), 강의와 토론(lecture and panels), 낭송회와 강의(readings and lecture)등이 이에 속하며 주제별 강의, 시간별 강의, 계층별, 매체별 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 강좌(course)

특정한 교육과정에 의한 일장기간의 교육으로 정기 강좌(regular course), 야간강좌(evening course), 청소년을 위한 강좌(courses for young people), 성인을 위한 강좌(courses for adult), 전문가를 위한 강좌(specialist course) 등이 있다.¹⁵⁾

미술관을 교육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독일 슈프링겔(Sprengel)미술관의 큐레이터겸 미술교육자인 리벨트(Dr.Liebelt)는 “첫째,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들을 미술관에 데리고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글로만 전달했던 것을 미술관에 아이들을 데려옴으로써 그 작품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미술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처럼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감성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청소년들에게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¹⁶⁾고 한다.

15) 유근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교육, 현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1992, p.60

16) Dr.Liebelt, 독일에서의 뮤지엄 교육현황, 조형교, 1992, p.188.

2. 미술관 교육의 변화

현대사회의 사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는 미술관의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올바른 미술문화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개발되고 있다. 기획전시와 관련된 강연회, 일반인을 위한 미술 강좌, 청소년 단체 관람, 인터넷, 어린이 미술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기회제공과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기회제공에서의 기회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워온 과거의 것들과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1970년대를 전후로 미적교육운동(aesthetic education movement)에 의해 비평을 통한 감상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의 인지이론의 발달에 의한 미술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미술중심미술교육(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과, 199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미술교육(multi-cultural art education)에 의해 비평교육이 폭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90년대에 들어 미술교육에서 작품 감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미술교육에서 이 영역을 감당하기에는 교수자원의 한계에 의해 어려움이 발생했고, 미술관과 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이 교육적 기능에 대한 요구도 날로 더 높아져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미술관에서 어린이 미술관이 부설됨으로써 미술관 교육자와 큐레이터들의 협동에 의해 새로운 교육 방안이 개발, 실행되고 있으나 성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각 수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단계에 따른 심화된 미술교육이 전개되기 힘든 실정이다. 그 외에도 교육에서 ‘경험의 질적 직접성’과 ‘비평적 탐구’가 강조되면서 미술교육에서도 종전의 슬라이드나 아트 포스터에 의한 감상보다는 원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 감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2-1. 자기 표현

미술교육에 있어 문제점은 창의성보다는 완벽성을 요구하는 기술(technique)과 노련함(skill)에 치중함으로써 미술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미술 감상, 미술비평, 미술사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작품 감상을 통해 작가의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작가의 내면 즉,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인가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미술교육은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조형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을 자유스럽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중요하다.

2-2. 작품제작

지금까지의 미술관교육은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으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미술관 교육이 강화된 이후에는 사전에 전시 작품과 연계된 수업 안을 계획하여 미술관 교육의 질적 경험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술관 내 실기실내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원과, 학생들의 소그룹활동은 또래 교수학습으로 이어져 사회성 발달과 자율적인 사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흥미위주의 결과물 제작이 활동목적이 아니라, 각 주제에 적합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작가의 작품제작의도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각자의 생각이 반영되는 풍요로운 산출이 중시된다.¹⁷⁾

미술제작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을 창조적으로 작가의 개성에 따라 특별한 표현방법과 기술로 표현함을 나타낸다.

미술관에서는 전시실마다 걸어 다니면서 작품 감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런 작품을 이용한 학습 안을 마련해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작가의 의도나 작업과정, 조형원리, 조형미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교실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은 공간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미술관은 주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학생들의 느낌과 감정들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품제작은 여러 재료들을 활용하는 기술과 사물 표현능력을 길러 작

17)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어린이 미술교육 백서, 2004, pp.9~10

품 완성후의 즐거움, 자기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¹⁸⁾

그래서 최근 효과적인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교사가 학습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을 찾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¹⁹⁾

이런 구성주의적 입장은 전통적 학습방식인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습자가 그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소극적 참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그들의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학습자 자신의 학습 구성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미술관 교육은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자신감,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미술제작을 위한 학습활동에는 잘 알려진 미술작품을 보여주며 비슷한 주제나 감정, 화풍이나 표현매체 등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 그들의 제작활동에 응용,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 재창조의 표현활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3. 전시작품 감상과 비평

미술의 감상활동은 미술작품의 의미와 이해를 깊게 하며 흥미 있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개개인의 작품을 보는

18) 진영선, 한국 미술교육의 문제와 전망, 고려대학교 사대논총, 1994, p.165

19) 안금희, 미술관 교육의 철학과 실제, 현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1995, p.88

것을 중시하고 표현위주의 교육적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 역사적, 미술적 가치를 측정, 분석,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술교육에서는 표현활동 중심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해, 감상 측면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감상 교육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Getty재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미술교육운동인 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의 교육사상은 이를 대표한다. 이 사상은 미술작품을 보고 이해하며 감상하는 단순 활동에서 개념을 확대하여 미술사, 미학의 이해적 측면이 고려된 작품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작품분석과 의미 해석을 통한 미술작품의 가치나 평가를 의미한다.²⁰⁾

미술교과서의 주입식 위주의 미술 감상이나 비평보다는 체계적, 연계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원작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기존에 교실 안에서 행해지던 이론, 실기 중심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미술관 교육은 전신작품을 감상하며 생각하고 느낀 점을 소그룹 토론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고 전시작품 감상, 즉 작가의 삶이나 작품의 제목을 현실의 삶의 문제와 연계하여 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스케치 하고 실기시간에 응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미술관에서의 미학적 비평교육이 창의적인 표현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심도 깊은 활동으로까지 이어진다.

20) 노부자, 미술감상과 교육, 조형교육, 1997, pp.71~73.

3. 평생교육의 의미

평생교육이란 교육의 최상위 개념으로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들을 포함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산업교육, 사이버교육 등 교육의 다섯 마당을 통칭하는 개념이다.²¹⁾

평생교육 개념은 생(life)·평생(life-long)·교육(educ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이라 함은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 움직임을 뜻한다. 생명체 특히 인간의 생명체는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게 된다. 이것은 곧 성장의 과정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단히 갈망하고 움직이며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성장의 질’이다. 동물은 자연적 접촉과 물리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물학적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육체적 성장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쇠퇴하여 사라지게 된다.

한편, 인간은 자연적 접촉 이외에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신체적인 발육과 성장은 물론 지적·정서적·도덕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생의 과정이며 성장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생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바로 교육 그 자체이며, 평생교

21) 권이중, 이상오, 평생교육-실제편, 교육과학사, pp.13~14

육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사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이 계속적인 자기갱신, 자기발전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교육의 과정이다. 시간적으로는 한 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의 주기를 포함하는 교육의 수직적인 통합을 말하고, 공간적으로는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생활의 장을 포괄하는 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²²⁾

4. 평생교육의 중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 지식·기술의 기하급수적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정한 시기에 제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정된 내용과 방법으로 영위해 온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평생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는 변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정시기에 걸쳐 실시되는 형식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에 나와서 인간답게 살 수 없으며, 또 정보화 사회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끝난 후에도 평생을

22)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1944, pp.312~316

두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³⁾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65년 유네스코의 성인교육추진 국제위원회의 랑그랑(Paul Lengrand)이 구상한 개념으로서, 1970년에 「평생교육 입문」이라는 저서를 발표한 후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의 적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대표적인 연구보고서인 「미래를 위한 교육」을 다시 유네스코에서 출판하였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적 용어로 알려진 것은 1972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 3차 세계 성인교육회의 이후의 일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8월에 춘천에서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정립과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방향을 협의하였다.

평생교육의 출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 내지 상실된 데서 비롯되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학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한낱 사회적 지위상승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진부한 지식과 무의미한 기술훈련만으로 교육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학교교육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지난 1960년 후반부터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바, 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23)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1994, p.311

삶의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화 되었으며 지식위주로 일관되어 있어,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는 물론 개인적·사회적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의 목적상실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역기능으로 인하여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비교

구 분	학 교 교 육	평 생 교 육
교육대상	일부소수/ 일부국민/ 획일적/ 동질적	부정다수/ 전국민/ 다양성 탄력성이질성
교육시기	한정(재학기간/졸업제도)/ 주무적 청소년기/ 장기간/ 계속적	무한정/ 수시/ 전생애 여가적/ 단기적/ 계속적
장 소	한정(조로 학교 내)	무한정(어디서나)/ 학교(내)외
참 가	독재적/ 통제적	자발적/ 융통성/ 자유
내 용	미래지향적/ 준비교육/ 추상적 계통적/ 원리적/ 획일적/ 계획적	현재지향적/ 생활교육/ 다양/구체 실제적/ 개성적/ 행동적/비계획적
목 적	입신출세/ 취직조건/ 이상적	인간교육/ 인격향상/ 실제적
제 도	형식적/ 고정적/ 획일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곤란	비형식적/ 다양/ 유연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용이
방 법	일반교육/ 수동적	상호교육/ 능동적

5.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제도 하에서 제도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는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70년대를 전후해서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활동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해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 비하여 비교적 산만하데 진행되어왔었던 사회교육활동을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었고 이 일환으로 체계를 확립하는 시도가 일부 교육학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⁴⁾

평생교육은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개선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사회, 즉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건설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교육의 이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24) 김수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현황 및 전시관력 교육프로그램 위한 제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9

25) 황아람,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5

이에 미술관 교육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발전시켜 다양한 미술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제공해야하며 개개인의 미적 능력을 고취시킴으로서 개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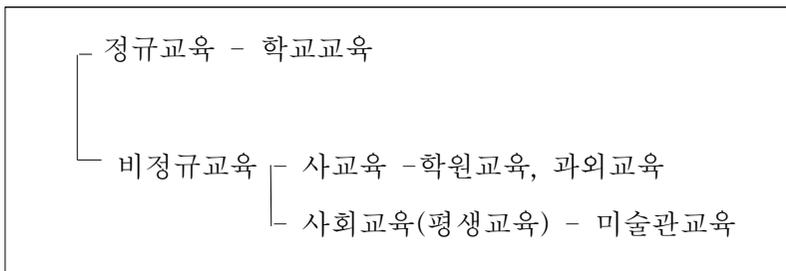
이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개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미술활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6. 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하고 비정규교육은 사교육과 사회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다.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이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는 학교교육과 미술관 교육이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2> 미술관 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학교교육은 미술관 교육과 달리 미술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과 창의성을 기르며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미술품을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현재 학교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방향이자 목적이다.

미술관 교육의 목적을 그 본 설립취지에 맞춰 비영리적 사회 봉사기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객들에게 미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 작품에 대한 미적가치를 일깨워 주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여겨 소중한 예술·문화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한편 미술관은 또한 운영하는 데에 따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하나의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전략적 목적을 지닌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목적과 방향설정을 일률적으로 지시하여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지닌 학교 미술과 교육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현대 미술관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 교육적인 기능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이 예술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로써, 단순히 계몽과 이해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예술문화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

26) 허정아, 초·중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의 연계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3~15

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미술관이 아닌 여타의 기구와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회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²⁷⁾

학교가 미술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미술과 삶의 관련성을 약하게 부여한다면, 미술관 미술교육은 미술과 삶의 관련성을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는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이라는 차원에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접목을 시도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미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즐거움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실제로 미술관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미술관이 지향하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미술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의 주임이 아니라, 대중으로 하여금 미술문화의 능동적이고도 자발적인 향수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대중은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27) 이연수, 현대미술관의 미술교육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5~6

7.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교육부에 의해 제공,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대중의 미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관심,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성격과 형식으로 제공되며, 현대의 미술, 문화 교육적 가치에 따라 점차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실행된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공공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공익사업 등과 같은 구조를 지니며, 전형적으로 강연, 안내관람, 실기수업, 영상프로그램, 워크숍, 심포지엄, 페스티벌 등이 유형을 포함하며, 미술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기능을 확장시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관람객 계층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미술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록, 라벨, 간행물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고, 전시와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교육적으로 전 사회를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독립강과는 전시와는 다른 성격으로 일반인들의 취미활동과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7-1. 전시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미술관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기획전시나 상성전시의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야기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전시안내(guided tour), 전시장 해설(gallery talk), 오디오 가이드(audio guide) 등이 있다.

(가) 강연(lecture) - 강연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주최측의 의도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정도에 의하여 주제와 내용이 결정된다. 강연은 강사의 선택에 따라 교육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강사의 선정은 강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나) 전시장 해설(gallery talk) - 전시장 해설은 전시장 안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제로 전시실에서 작품을 보면서 행하는 활동의 하나이다. 한정된 테마로 작품을 앞에 두고 더욱 전문적인 내용의 해설을 하는 것이 특색이다.

(다) 전시장 안내(guide tour) - 전시장 안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전시된 작품을 선정, 안내 코스를 결정하고 관람객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일이다.

(라) 전시 설명회(gallery talk) - 갤러리 안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며 전시기간 내 매일 일정시간에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학예연구원, 관련 학자들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자원봉사자인 안내자(docent)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마) 오디오 가이드(audio guide) - 오디오 가이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사와 함께 전시작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 답변 식의 질문을 제시하고, 관람객들이 작품을 평가하고 전시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안목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2. 전시 관련의 교육프로그램

미술관의 전시와 관련하여 예술작품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직접 체험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활동으로 연결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 유형으로는 강연(lecture), 강좌(course), 세미나(seminar), 심포지엄(symposium), 워크숍(workshop), 실기수업(studio classes), 감상제작수업(gallery Studio classes), 미술관 학교(art museum studio), 연계 프로그램(collaboration program) 등이 있다.

(가) 심포지엄(symposium) - 특정하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발표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부분이 특별전시

와 연계된 일회성 행사가 많다.

(나) 워크숍(workshop) - 심포지엄보다 소규모이며, 참가자와 상호작용이 더 많다. 종종 그룹단위의 실습이 병행되며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비디오 프로그램 - 비디오 프로그램은 미술관에 대한 소개,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작품 및 작가의 삶, 제작기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 전시작품 감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관람객에게 제시해준다.

7-3. 독립강좌

독립강좌는 관람객과 미술관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시와는 무관하게 보다 폭넓게 예술을 접하고 취미 활동과 교양적 활동,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페스티벌-콘서트 (event & festival), 영화, 연극, 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 확장프로그램(extend program), 대여프로그램(loan service) 등이 있다.

(가) 미술 아카데미 강좌(academy) - 요즘 대부분의 미술관에서는 미술 강좌의 하나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미술관 마케팅 활동, 즉 미술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 강좌는 미술관의 미술

아카데미 운영 방침에 따라 미술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인 이론 강좌와 실기 강좌로 나눈다.

(나) 학교 연계프로그램 - 박물관의 소장품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미술관 교육담당자는 학교 교사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미술관을 활용하여 미술교육이나 역사교육내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미술 분야를 전공한 예비인력에게 접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교사들에게 전시 도록, 워크시트, 슬라이드, 비디오 매체와 같은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거나 학교에 유물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미술관과 협동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함께 전시를 기획, 미술관에서 학교 단체관람과 자유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미술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교 연계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미술관이 현장학습을, 2차적으로는 교실 내에서의 심화학습으로 발전한다.

(다) 교사 연수프로그램 - 교사 연수프로그램은 초,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미술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지도 함양 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미술 문화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 어린이 프로그램 - 어린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침으로써 미술 감상 능력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 인턴쉽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 미술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미술 분야를 전공한 예비 전문 인력에게 미술관의 실무경험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미술관 인턴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발된 인턴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경력이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실무 경력으로는 인정된다. 실습분야는 지원자의 희망분야 및 미술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학생들은 소속 학교와 협의하여 인턴쉽에 대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미술관이 대중과 거들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술 전공자나 미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²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8) 조지현, 현행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0~11

<표 3>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분류

구 분		내 용		
OFF Line	관내	성격	교양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특별봉사교육	
		대상	나이별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집단별	개인/집단(일반단체/ 학생단체)
				전문가(미술가/ 학자/ 교사/ 인턴쉽/ 도슨트)
				가족
				장애인(청각, 시각장애인)
		시간	정기적/비정기적	
		형식	감상 - 전시안내/ 갤러리토크/ 워크시트, 오디오가이드/ 비디오상영	
	이론 - 강연/ 강좌/ 세미나/ 심포지움			
	표현 - 워크숍/ 미술실기/ 글짓기/ 연극역할놀이			
	통합 - 감상과 제작/ 체험교실/ 미술관학교			
	특별행사 - 행사/ 축제/ 공연(음악회/ 연극/ 무용공연)/ 영화상영/ 패션쇼			
	순화 전시			
	관외	형식	학교 대여 서비스	
학교 연계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도시/농촌/어촌/산간/도서 프로그램				
지역		도시/농촌/어촌/산간/도서 프로그램		
On Line	가상	형식	정보 센터	
			인터넷 전시/가상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	

IV.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은 이론형식과 실기형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형식에는 강의, 강연, 강좌, 대화,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주로 전문가의 설명, 이론 중심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기형식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형태의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성격과 특징에 따라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는데 어린이 미술관학교, 미술관대학, 미술 아카데미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그 내용도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보완하는 교육내용, 방법 등을 제공해 준다.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미술관마다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활발해져야 하며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린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1. 국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우리나라의 미술관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도서관과에서 담당한다. 도서관박물관과는 도서관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독서진흥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박물관 진흥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사립 박물관 설립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²⁹⁾

1990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사박물관을 포함하는 국가 중심의 시책들이 시작되었다. 2005년까지의 기준으로 등록된 박물관은 266개(국립 30, 공립 54, 사립 96, 대학 85, 기타 1)관이며, 미술관은 61개(국립 1, 공립 7, 사립 53, 대학 1)관이다. 지난 근황을 보면 박물관에 비하여 미술관은 설립이 거의 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 운영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일정한 모델을 상정하는 표준화를 지향함으로써 인해 비슷한 성격의 박물관들이 중복 양산되었다.

29)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백서, 2002, pp.39~42

1-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은 덕수궁시절인 1981년에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를 발족시켜 ‘현대미술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술관이 주최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1986년에 과천으로 옮겨 새로운 제도 속에 섭외교육과가 개설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교육홍보과에서 담당하게 된 업무는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미술 활동보급 및 홍보, 학술도서 및 자료의 수집, 출판, 관리, 미술도서 및 자료의 국제교류, 그리고 미술 전문 인력양성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섭외 교육과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은 학예실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역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천 본관에서 이뤄지는 일반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미술관 프로그램, 그리고 덕수궁미술관 프로그램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문인프로그램과 일반인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독립강과의 형식으로 전문인 양성을 위한 미술관 실무경험과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론 강의 및 토론, 실기, 감상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기준으로 성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³⁰⁾

<표 4>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전문인 교육	미술관학 강좌	미술관종사자 및 관련 대학원생 등 전문 인력	이론 강의 /토론	4.16~4.18	30
	인턴쉽	미술관 전문직 종사 희망자	이론교육/ 현장교육	1년간 1000시간	17
	미술관 교육전문 인력 워크숍	미술관교육 담당자 초등교사/ 예술교육 전문 인력	이론 사례 논의	매년 하반기	00
일반인 교육	토요미술 공개강좌	일반 성인	전시해설/ 이론 강좌	9월~11월 토요일총11	50
	시니어 미술 강좌	60세 이상의 성인	미술실기/ 이론 강좌	3.11/3.18 /3.25	30
	작품으로 이해 하는 현대미술	일반 성인	이론 강좌	7월 토요일 총3	30
교사	초등교사 미술연수	초등교사	이론/실기 /감상	7.24~7.28	40
	중등교사 미술연수	중등교사	이론/실기 /감상	8.7~8.11	40
	교사초정 전시설명회	초/중/고 교사	미술이론/ 실기/감상	3~11월 토요일 총4	40
	특수교사 미술연수	특수교사	미술이론/ 실기/감상	7.31~8.4	40

30) <http://www.moca.go.kr> 2006년 11월 10일 검색 기준

1-2. 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체계화하여 근대미술에 나타난 미의식과 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덕수궁미술관은 근대미술 전문기관으로서 근대미술의 조사, 연구, 근대미술 관련 기획전 및 소장품 전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학술 활동과 출판, 근대미술 관련정보의 국제적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개관이래 2005년까지 총 38회의 기획 및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약 250만 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작품설명회, 강연회 등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미술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도심 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¹⁾

덕수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31) www.moca.go.kr/Modern/modern1/deoksugung/index.html 2006년 11월 10일 기준

<표 5> 덕수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일반인	톱스&몽크 기획전시	일반인	이론/ 감상	9.9~10.21 매주 토요일	55
일반인	예비대학생을 위한 교양미술아카데미	예비대학생	이론/ 시청각	1.11~1.27 매주 수/금	40
일반인	근대 미술 속 아이들	일반인	이론/ 시청각	6.24~7.29 매주 토요일	55
가족	토요휴업 일을 위한 가족대상 프로그램	초등1~3학년 보호자 2명	교재/ 감상	3~12 2/4째 토요일	600
유치원	유치원친구들을위한 전시 설명회	유치원 단체접수	이론/ 감상	3~12 매주 수요일	00
초등 학생	즐거운 미술교실	초등4~6학년	감상/ 전시	1학기:3.21~7.18 2학기:9.5~12.12	1000
	겨울방학 미술과 놀자	지역아동 센터공부방	이론/ 감상	1.10~1.13	160
	여름방학 미술과 놀자	지역아동 센터공부방	이론/ 감상	8.22~8.25	150

1-3.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시청 부근은 옛 조선의 중심지였던 이유로 많은 고궁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옛 대법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이다. 1988년 전시전용공간으로 문을 연 이곳은 개관 당시에는 1980년까지

명문 서울 고등학교가 있었던 경희궁 터에 자리 잡았으나, 전시물의 확충과 교육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현재 대법원 자리로 2002년 5월 신축·이전하였다.

현재 미술관 건물은 복고풍 건물의 일부만 남기고 신축한 것으로 신구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예술 공간으로 쓰이기에 적합하며, 전통과 예술이 만나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총 300여 평에 달하는 공간에 6개의 전시실과 예술 체험 공간, 야외조각공원 등이 있으며, 6개의 전시실 중 하나는 천경자전 전시실이라는 이름하에 미술가 천경자 선생이 기증한 93점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매년 국제적인 수준의 기획전과 특별전을 개최해 문화, 예술에 목말라 있는 많은 시민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미술관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해오던 금요미술 시민강좌를 보다 알찬프로그램으로 구성, 2000년 시민미술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³²⁾

서울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2) <http://seoulmog.org> 2006년 11월10일 검색 기준

<표 6> 서울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어린이	어린이미술교실1	초등학생	이론 강의 실기	5.4~7.20	20
	어린이미술교실2			5.12~7.21	20
	어린이 미술 감상			6.2~8.18	20
	어린이 방학미술특강1			8.3~8.24	20
	어린이 방학미술특강2			8.3~8.24	40
	어린이미술교실3			8.4~10.20	20
장애인	장애어린이 미술교실(초급3기)	장애인 초등학생	조형 제작 치유	4.3~6.22	15
	장애어린이 미술교실(중급2기)			4.3~6.19	
	장애어린이 미술교실(중급3기)			7.3~9.18	
	장애어린이교실 부모특강 1	장애아동에 관심 있는 분	특강	4.3~6.19	20
	장애어린이교실 부모특강 2			7.3~7.24	
외국인	외국인 교실(도예)	외국인 및 내국인	이론 실기	5.12~7.21	10
	외국인 교실(수묵화)			8.4~10.20	
일반인	현대미술의 만남	일반시민	이론	4.4~6.20	40
	한국미술의 만남		이론	4.5~6.21	
	내가 그리는 그림		실기	7.5~9.20	20
전문교육	도슨트 교육프로그램	전공자	이론	9.7~11.30	40

1-4. 삼성미술관

삼성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관련 프로그램과 학교연계프로그램, 전문인 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삼성미술관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명의 교육연구원이 있고 모두 미술사나 박물관학 석사이상의 전공자이다.³³⁾

삼성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삼성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일반인 강좌	미술관건축과문화읽기	회원	이론/감상	2005/10/4	70
	한국의 근현대 작가론	일반인	이론/강좌	4.7~6.2	112
	한국의 옛 그림			3.28~5.16	100
	현대미술의 흐름			7.7~9.1	150
	우리건축의 아름다움			7.4~9.5	150
	전통생활의 미학	회원		10.24~12.12	100
	미술관 건축 읽기			10.20~12.8	150
어린이	어린이 건축프로그램	일반인	이론/감상	10.28~12.10	12
학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작품감상		강의/감상	5.6~12.30	100
	백남준진시 미술교사 초청행사		이론/감상	6.30	100
	조선말기회화전 교사초청회	교사	관람/이론	11.15	100

33) <http://www.leeum.org> 2006년 11월10일 검색 기준

전시	아트스펙트럼-작가와만남1	일반인	관람/체험	2.18	200
	아트스펙트럼-작가와만남2			3.25	220
	한국현대미술과 아트스펙트럼		토론/이론	3.15	200
	마크 로스코 강연회		강의/감상	6.22	230
	로스코 워크숍		토론	6.23	30
	백남준 전시 어린이프로그램	회원	감상/체험	8.5~9.10(토/일)	20
	조선말기 회화전 1차 강연회			11.25	250
	조선말기 회화전 2차 강연회	일반인	강연	12.16	250
	크리스토&장 클로스 특별강연회			11.4	250

1-5. 예술의 전당

1991년부터 실시해 온 ‘미술교육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은 예술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보고 싶고 미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직접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미술교육과정이다. 미술 실기 교육 과정과 현대미술 작품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는 미술 이론과정이 개설되어 있다.³⁴⁾

예술의 전당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34) www.sac.or.kr 2006년 11월 10일 검색 기준

<표 8> 예술의 전당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강좌	실기 강좌	성인 일반인	실기	1학기: 3~6월 2학기: 8~12월	25
	자유 아트리에				
	20세기 현대미술사		이론		
	현대 예술의 철학				
	깊게 보는 세계의 미술/일본편				
영재	영재 1	오디션에 합격한 7~중학생	이론/실기	매주 토요일	4
	영재 2				
	영재 3				
어린이	엄마랑 아가랑	32~42개월	이론/실기	매주 토요일	00
	올챙이 창작 교실 1	5~6세	이론/실기		
	올챙이 창작 교실 2				
	꾸러기 창작 교실 1	7세	이론/실기		
	꾸러기 창작 교실 2				
	어린이 창작 교실 1	1~3학년	이론/실기		
	어린이 창작 교실 2				
	뎃쟁/ 수채화	4~6학년	이론/실기		

1-6. 국립중앙 박물관

박물관은 역사관 · 고고관 · 미술관 · 기증관 · 동양관 · 기획전시실 · 어린이관 · 여사의길 · 으뜸홀 등 전시영역, 수장고 · 정리실 · 소독실 등의 수장영역, 극장 · 강당 · 교육시설 · 도서실 · 자료실 등의 교육영역 및 연

구관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의 전시실은 고고·역사·미술·기증·동양 관련 문화재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 각종 기획전과 특별전을 수행하는 기획전시실, 전시를 통한 체험학습공간인 어린이박물관, 석조물 등을 전시해 놓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국립중앙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6 35)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유형	기간	인원
가족/ 어린이	엄마 아빠 그림속에는요?	6~7/	실기	9.16/10.21/11.8	20가족
	도자기에 담긴 조상의 혼	1~3학년		9.9/10.14/11.11	20가족
	삼국의 찬란한 금속장신구	4~6학년		9.23/10.28/11.25	30가족
장애인	출발!우리보물 손끝탐험대	시각	체험	5.19/5.26/6.23/9.22/	15
	병풍 속 동화세상	청각		5.12/6.9/9.8/10.13	
외국인	다른 문화/같은 마음	외국인		6.18/7.11/10.22/11.2	30
성인	은하 문화학교		강의/답사	3~4/9~10매주수요일	200
	여성 문화학교			3~4/9~10매주금요일	100
	토요 명사특강	성인남	이론/실습	3~12 넷째주토요일	200
	도자교실	녀 /일반인	실습/체험	3/4/9/10	48
	전통염색교실				
	금속 공예교실				
	서화 교실				
학교 연계	우리는 박물관 탐험대	초/중/고	체험	매월 12/14/21	150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고등부	이론/감상	매월 12/14/16/19/21	30

35) www.museum.go.kr 2006년 11월 10일 검색 기준

1-7.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등과 더불어 문화 불모지라는 부산의 오명을 벗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시립미술관은 1994년 12월 12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4년여의 공사 끝에 1998년 2월 25일 준공하여 3월 20일 개관을 보았다. 미술관은 연면적 21,560㎡(6,522평)에 건물연면적 21,425㎡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연구실, 사무 공간, 야외조각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에서는 각 장르별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전시, 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작품 및 활동으로 폭넓은 미술문화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에 걸 맞는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제공으로 미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두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부산시민의 미술문화 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 및 부산과 영남권 미술을 중점 수용하는 복합 예술의 종합미술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작품 및 예술인의 활동으로 일반대중과 손쉬운 예술적 만남의 장(場)을 제공하고 미술인구의 저변확산과 미술창작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향후 부산미술계에 혁신적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분에서는 미술관 활동에 있어서의 미술관 교육은 근년에 들

어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관람자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형을 기초로 한 효과적인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순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하여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올바른 미술문화를 정착시키고 각종 기획전시와 관련한 강연회 및 시민미술교양강좌, 어린이 미술 강좌, 작가와의 대화, 초등학교미술교사 연수교육, 자원봉사자 도슨트 교육, 미술관 학예연구실습이수과정 등을 추진하여 예술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예술을 둘러싼 인간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표 10> 부산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7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인원
시민 미술 강좌	미술사 강좌	일반인	3.20~4.19	100
	켈트 강좌(초급)		3.28~5.30	25
	판화 강좌(초급)		3.29~6.7	25
	직장인 토요일미술 강좌		5.26~6.30	30
	직장인 토요일미술 강좌		8.25~10.27	45
	한국화 강좌		10.11~12.13	25
	판화 강좌(중급)		10.9~12.11	25
	켈트 강좌(중급)		10.12~12.7	25
	미술관학 강좌		10.18~11.8	50
어린이 미술강좌	어린이 미술강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어린이 게임제작 강좌 (Think With Fish)	어린이	5.12~7.8	25

1-8.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 시립미술관은 대전, 중부권의 최초 공공미술관으로 지역미술은 물론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림으로써 보다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삶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미술관이 위치한 둔산 지역은 1990년대 엑스포개최와 함께 조성된 신시가지로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하여 대전시청, 법원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가로지르는 갑천을 사이로 대덕연구단지과 대덕밸리, 엑스포 과학 공원,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유성온천과 공연시설들이 연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전시를 통한 미술문화발전은 물론 오늘날 미술관에 요구되는 사회 교육기관, 나아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신장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 지역미술 연구·조사·전시의 중심기관
-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조망하는 현대미술관
- 과학도시 대전의 특수성을 접목한 미디어·디지털 아트를 선도하는 전시
- 국외미술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연구, 전시로 우리미술의 발전에 기여

- 시민과 미술이 융화하여 미술문화를 가꾸고 향유하는 생활문화 공간

<표 11> 대전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7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인원
성인 미술 강좌	2007 가을 서양대학사	일반인	10.9~11.27	50
	미술교사초청 전시 설명		9.14	
	뉴미디어아트와 영화		9.6~10.4	50
	대전 건축, 그 속에 담긴 이야기		7.23~8.28	200
	미술, 세상을 만나다 -미술대학생을 위한 진로 강좌		3.29~4.19	50
	디지털 시대, 예술의 이해 -미디어 아트의 역사와 미학		3.27~5.29	200
	현대미술의 8가지 쟁점		3.29~5.17	200
	기획전 <온고지신-잃어버린 퍼즐 찾기>		11.24~2.2	50
어린이 미술 강좌	Fun Fun! 미술여행 강좌	장애우	11.24	각 20
	우리가족 미술관 체험	초등학생 가족	7~11	15가족
	요술쟁이 미디어 1부~4부		9.29~10.6	20가족
	미술관 일일체험 교실	어린이	9.1~11.31	40
	어린이 아틀리에		9.1~11.31	각 20
학술 세미나	국제학술세미나 LOCAL TO LOCAL	일반인/전문가	10.5	300
	모자이크 시티전 오프닝 파티		1.1	100
	화론, 어떻게 할 것인가-자생성과 원현상 : 일랑 화론의 영원한 짝패		4.6	200

1-9. 광주 시립미술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면적 1만3329㎡ 규모로 재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259억 원을 들여 6개 전시실과 수장고, 도예실, 문화학교, 어린이미술관 등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지하에 들어선 수장고는 항온·항습기능을 비롯해 화재 발생시 하론 가스가 자동 배출되는 첨단시설로 이뤄졌다.

새로 개관한 시립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미술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하 1층에 꾸며진 도예교실은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가 설치되어 도예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개 전시실과 4개의 교육실로 이루어진 어린이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운영하는 한편 토요일음악회, 엄마랑 함께하는 미술수업 등 체험 위주의 학습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새로운 중외공원 시대를 맞아 개관 특별전을 열게 됐다”며 “시민중심의 미술관, 작가중심의 미술관, 어린이 미술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12> 광주 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07

성격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인원
성인 강좌	2007 누드 크로키 교실	일반인	4.4~7.11	30
	생활 도예 교실		4~7/8~12	12
	뉴미디어아트와 영화		9.6~10.4	50
어린이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교실	어린이	7~8	10
어린이 문화 센터 미술 · 놀이 · 음악 · 체육 · 공예 · 체험행 사 등 38개 강좌	엄마와 처음 만나는 “하바 퍼포먼스 미술놀이”	22~30개월	10.22~12.15 매주 화	엄마랑 자녀1 인 15명 미술관 에서 엄마랑 놀자
		28~37개월		
		38~45개월		
	엄마와 함께하는 “가베놀이”	22~30개월	10.22~12.15 매주 화	
		32~43개월		
		4~5세		
	아마데우스 클래스 피아노	9~18개월	10.22~12.15 매주 수	
		19~29개월		
		27~35개월		
	엄마와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24개월~36개월	10.22~12.15 매주 목	
		37개월~48개월		
	꿈지락~ 꿈지락~“조형놀이	3~4세	매주 금	
호기심 자극 “야호! 하바야 놀자”	14개월~19개월	10.22~12.15 매주 토		
	18개월~24개월			
	22개월~32개월			
키크는 “놀이체육”	유아 5~7세	10.22~12.15 매주 화		
생각 통통~ 표현 쑥쑥! “동화 구연”				
조물 조물 손으로 만나는“조형놀이”				

— 1. 국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철학적 놀잇감 “유아 가베스쿨”		10.22~12.15 매주 목	
창의력 향상~ 창의교구! 레고에듀 “체크머신”	유아 3~6세		
태권도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태권 에어로빅”	초등1~6학년		초등 1~6 학년 15명
손재주 키우고, 창의력 높이고 다양한 “조형 놀이”			
책도 만들고, 조리 있게 생각하는 “통합 논술교실”	초등2~6학년	10.22~12.15 매주 화	
감성 지수를 높이는 맑은 소리 “오카리나 교실 ”			
예술가를 꿈꾸는 화가교실 “수채화 아카데미”	초등1~6학년		
나만의 글씨로 개성을 살리자 “어린이 P.O.P”			
멋진 작품을 만들자 “종이접기 작품반”			
췌즈양과 힙합군이 만날 때!!	초등1~6학년	10.22~12.15 매주 목	
손끝으로 펼치는 “마술의 세계”			
단계별로 배워보자~ “꼬마 도예가”			
철학적 놀잇감 “어린이 가베스쿨”			초등1~2학년

2.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프랑스는 박물관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공공법인에 속해 있는 박물관과 사적법인에 속해 있는 박물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³⁶⁾, 공공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으며, 사적법인의 예로는 협회, 회사, 재단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미술관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프랑스 박물관 현황³⁷⁾

구분		수
정부 소속 박물관 (Muse'es Nationaux)	- 문화부 박물관(DMF) 소속의 국립박물관(33) - 문화부 다른국 소속의 국립박물관 - 다른 부서(Ministère)소속 박물관	44
그 외 박물관 (Muse'es Classés et contrôlés)	- 32개의 Muse'es Classés - 기타	1,084
합계		1,128

박물관 업무는 문화부 박물관국(DMF)에서 담당한다. DMF는 (일반 감독과/소장품과/박물관 기술·건축·시설과/전문 인력과/대중·교육 및 문화보급 활동과/재정·행정·법률과/커뮤니케이션 임무과)의 7개

36)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인 지위를 구분하고 있다.

37)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pp.56~57

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박물관 정책을 문화정책에 중심에 놓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박물관 건립정책과 소장품의 확대 정책, 전문인 양성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박물관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대중·교육 및 보급과에서 담당한다. 이부서는 박물관이 대중들을 맞이하고 정보를 주는데 있어서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하며 감독하고, 시청각 도구와 이미지 출판을 통해 문화를 보급하는데 힘쓰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발달은 앞서 살펴 본 대로 교육부와의 연애험력 속에서 더욱 발전함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은 ‘모두를 위한 예술적 문화적 교육 5개년 계획’의 중심부에서 2001년 새 법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중의 지식, 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위한다.’는 소임을 위해 나름대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확대시키고 강화하게 되었다.

미술관의 교육업무는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방법과 자재개발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술관이란 일차적으로 작품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미술관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작품과의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감상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도록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부 박물관국(DMF)이 관할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문화부의 다른 국에서 관할하는 국립박물관, 문화부가 아닌 다른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국립박물관으로 나누어

진다. 문화부 박물관국(DMF)내의 국립박물관연합(RMN)에서 운영을 전담한다.

국립박물관의 행정적 성격은 국가관할서비스(SCN)이거나 공공기관(EP)이다.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은 SCN으로 ‘오르세 박물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관장은 DMF에 예산을 청구하며 문화부와 재무부의 협조와 감독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루브르와 같은 산업적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의 성격을 가질 경우 루브르 자체에서 예산을 보충하여 자치적 운영을 해 나간다. 국립박물관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율권을 갖기 위해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EPA), 산업적 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2-1. 루브르 미술관(Grand Louvre)

루브르 미술관³⁸⁾에서는 전시를 활용한 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일반적인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www.louver.fr와 www.louver.edu의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미술관의 기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오프라인 상에서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아도 일반 성인 강좌와 어린이를 위한 강좌를 개인이나 단체로 구분지어 나누고 있다. 이중 한 가지 프로그램인 방문

38) <http://www.louver.fr> 2006년도 11월 기준

자를 위한 전시 설명 프로그램의 경우만 살펴도 9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 간단한 정보를 주는 일반적 설명 프로그램에서부터 테마별, 소장품별, 개별, 작품별 또는 작가별 서명 프로그램이 직접 작품을 보면서 이루어지며, 방문객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은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위해서도 마련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론 강좌의 경우 38강 각 강의주제를 알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www.louver.fe는 미술관 방문 안내 및 50여개의 가상 전시실로 구성되어 루브르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소개 및 입문적 정보와 미술관이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루브르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 루브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p>개인 Individuels</p>	<p>성인 Adult</p>	<p>-Visites- conferences et promenades architecturales : 미술관 관람자를 위해 작품을 보며 설명 해주는 프로그램 (9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s generales et tarifs : 일반적 정보 제공 · Visite decouverte : 전시에 대한 설명 · Visites d'une collection : 컬렉션별 설명 · Visites thematiques : 주제별 설명 · Themes du lundi soir : 월요일 저녁의 테마 · Monographies d'artistes : 예술가에 대한 설명 · Une heure -une oeuvre : 한 시간 동안 한 작품 설명 · Visites d'expositions temporaires · Promenades architectur <p>- Ateliers : 실기 프로그램(15가지)</p>
---------------------------	---------------------	--

— 2. 프랑스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cles approfondis : 38강의 미술사 이론 연구 과정
	<p>아동 Enfa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es - conferences : 전시 관람아동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 Ateliers : 실기 창작 프로그램 (연령별 6개 분반) : 4-6세/6-8세/7-8세/7-10세/8-12세/9-13세/10-13세
<p>단체 Groupes</p>	<p>성인 Adul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es - conferences et promenades architecturales : 방문 단체 설명 프로그램 - Ateliers : 실기 프로그램
	<p>아동 Enfa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es - conferences : 방문 단체 설명 프로그램(학교 단위 등) - Ateliers : 방문 단체 실기 프로그램(학교 단위 등)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es en groupe autonome avec guide ou conferencier exterieur : 해외 단체 관람객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 Activites en partenariat avec d'autres institutions culturelles parisiennes : 타 문화학교와 함께 하는 활동 - Conferences en auditorium : 토론 - Stages d'information : 실습 - Mediatheque : 미디어 방 - Louvre.edu : 루브르의 문화교육 사이트 - Informations pratiques : 정보의 제공

2-2. 퐁피두센터

(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퐁피두의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복합적인 교육적 지침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3개의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조형예술, 건축, 디자인, 비디오, 영화, 음악, 스펙터클 등 최대한의 다양한 영역을 수용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20세기 예술과 문화에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중교육은 퐁피두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적인 활기구축과 생산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목표로 한다. 그 3개의 축이란 첫째, 어린이와 함께하는 실험, 둘째, 성인 재교육, 셋째, 문화보급을 말한다.

2-2-1.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실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퐁피두센터 어린이 아뜰리에의 활동은 1977년 퐁피두센터의 창립을 주도하였던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퐁피두센터의 계획수립 팀은 사실상 어린이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장소 또는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5년부터 젊은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소수의 그룹들이 행정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프로그램과 인적구성, 그리고 공간문제를 해결하며 교육계획을 제시하여 변화시켰다.

초등학교에서 2년간에 걸친 실습을 거쳐 엘지 로디의 지휘아래 미

미술학교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구상한 이 계획은 1977년 2월 퐁피두 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실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계획의 목표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예술적인 깨달음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발견하고 미술작품이나 작가들과의 접촉은 물론 실험과 발명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영역의 확립

특정분야에 국한된 아뜰리에-조형 미술 분야, 음악분야, 공간/환경 분야 등 조형미술분야만 하더라도 텃생반, 색채반, 형태반 등으로의 구분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나 복합 영역적 접근을 교과과정에 따라서 조형예술 아뜰리에라 할지라도 필법, 시, 소리 등과 같은 다른 감각적 표현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음악에 입문하는 경우에도 유형적이거나 그래픽 한 표현에 의존하고 정보과학적 도구를 사용한다. 시청각적 활동들이 조형 표현의 방법론과 융화한다.

둘째, 어린이의 표현

어린이 아뜰리에에는 아이들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장인적 기교를 주입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으며, 유동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탐구영역을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교적으로 완벽한 것을 만들도록 이끄

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즐거움을 담은 물건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개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비록 심미적 선입관을 작업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감각의 개념이 아름다움의 개념보다는 선호된다.

셋째, 다중 감각적 교육의 지향

감각을 일깨우는 일이 이 “미술입문”의 출발점이다.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을 깨달으며 이러한 감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발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가인 마 샬 맥루한은 그의 저서 <구텐베르그의 은하수>에서 “제 감각들 상호간의 작용과 관계는 이성의 본질을 이룬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어린이 아뜰리에에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촉각과 시각 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기본이 되는 경험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숨겨둔 물건을 만지게 하여 사물을 발견하게 하고, 사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신 단순한 접촉이 야기 시키는 감각을 표현하게 한다.

넷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놀이

어린이들에게 기술적인 제약이 많거나 반대로 결과가 뻔한 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표현이란 관습적이고 상투적이며 유치한 표현을 재생산하는데 손쉽게 몰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상상력을 자

극시키고, 그것을 보다 멀리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놀이의 법칙을 제시한다.

놀이로 유도한다는 것은 놀도록 내버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작품과의 교류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기획전시와 친근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미술작품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술관 방문은 예를 들어 작가의 작품세계 발견과 같이 자연스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지도 교사에 따라 작업의 의미를 일깨우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어린이 아뜰리에의 활동이 오늘날의 작가들의 탐구와 창조를 근간으로 부단히 성장하는 교육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2-2-2. 성인 재교육

처음부터 어린이를 다루는 경험보완의 필요성 차원에서 계획된 성인 교육은 점차적으로 요구가 증가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추진 되어온 프로그램은 항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교사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예를 보면, 이들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것은 교육체계의 중요성이 감각 원리가 아니라 지능 원리에 의한 지식획득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창의력을 개발시킬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비 모임이라든가 착수한 주제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일, 작가들에 대한 자료의 문서화,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과 협력하는 일, 그리고 작업내용이 학교교육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일들이 우리의 몫이다.

2-2-3. 문화의 보급

파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 아뜰리에에서 개발시킨 여러 교육 활동은 설립 초기부터 문화보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되어 풍피두센터 이외로 널리 확대되었다.

즉 미술관이나 문화원을 대상으로 구상한 순회전시계획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에 이동용 교육기재를 순회시키는 일 또한 초기부터 계획되어, 아뜰리에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최초의 전시들은 현대 미술가들의 기법과 도구,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색채, 선, 부피 등과 같은 기초적인 조형언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예로 “주시하는 손”이라 명명된 어린이 아뜰리에 개관 기념전은 맹인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촉각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전시였는데, 일반 아동들에게도 현대 미술가가 제작한 조각품을 손으로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풍피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풍피두라는 적당한 공간을 잘 활용하여 발전하였다. 또한 예술가이자 동시에 강사인 교사들의 전문성도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와 관외활동을 통한 경험의 공유는 미술관 교육 발전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퐁피두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³⁹⁾

<표 15> 퐁피두센터 교육프로그램

<p>성인 Adult</p>	<p><전시해설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s Visites commentees de l'exposition Alors la Chine? - Les Visites commentees de l'exposition Jacques Henri Lartigue <p>:특별 강사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 개인/단체(예약 필수) 대상</p> <p><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s Visites commentees des collections 여 Musee <p>: 주요 작품에 대한 강사(작가, 건축가, 미술사가)의 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s Rendez-vous du Musee <p>: 주제별 강좌 6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e aux oeuvres <p>: 미술사 강좌</p>
<p>아동 Enfa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eliers : 실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 l'Atelier au Musee 1 <p>: 퐁피두 소장품을 가지고 20세기 화가들의 기법 체험</p> <p>: 부모 참관 가능 / 장애아동 참가 가능</p> <p>: 감상 + 실기형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os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 Tour Eiffel haute en couleurs <p>: 에펠탑을 주제로 탑에 얽힌 이야기와 에펠탑을 주제로 한 작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 후 아동들이 실기 창작 활동
<p>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여 가지 자료 제공
<p>사이트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제공
<p>학교 교수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안내 -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 교수진 안내도 있음

39) 김현주, 미술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4~24

3. 미국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미국의 미술교육은 미국사회의 안정 및 발전과 더불어 그들 특유의 미국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미국의 미술관은 한마디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작품을 수집하고 수집한 작품들을 잘 보존하는 것에 전일하게 초점을 맞추어 온 유럽의 박물관과는 다르게 미국의 미술관은 그 교육적 기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미술관 설립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미술관의 3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일 외에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장품에 관한 일반 대중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며 다른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소장품을 교환하여 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감상의 폭을 넓혀주는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교육부서를 별도로 두고 미술관 교육과 혹은 교육부 큐레이터의 관장 하에 전문 직원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1. 뉴욕근대미술관

(MoMA,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뉴욕근대미술관⁴⁰⁾의 미술관 교육부서는 다양한 관람객을 만족시킬

40) <http://www.moma.org/education/>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들은 “시각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미술관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공공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며 별도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 공공 프로그램

전시를 보러 오든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에서 전문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있다. 점심 강연, 갤러리 강좌, 작가와의 대화, 특별전 프로그램, MOMA에서의 월요일 등이 있다.

(나) 학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들이 복합적인 시각현상을 이해하여 분석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돕는데 있다. 미술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미술작품 감상과 학교 학습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미술관 전문 교육자와 교사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다) 가족 프로그램

다섯 살과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미술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트 사파리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미술 감상을 위한 안내서로서 피카소, 루소 등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동물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갤러리 강좌는 미술관 개관시간 전에 어린이들을 동반한 성인이나 가족들이 전문 강사의 안내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미술관이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환타지, 고전 영화 등의 필름을 상영하고 토론을 비롯하여 갤러리에서의 연계 활동을 유도하는 가족 필름 프로그램이다.

(라) 인턴쉽 프로그램

미술관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미술관의 분야별 경험을 쌓도록 구성되어 있고, 강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되어 성공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에게 인증서와 증빙 서류를 발급한다. 봄과 가을 학기 중에 관련 전공의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직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기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다.

여름 인턴쉽은 3학년 이상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9주 동안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 비영리 기관, 대안 공간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문적인 직업을 미술관에서 원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

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미술관의 각 부서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마)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뉴욕근대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작품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어야 한다. 미술관은 입구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이 준비되어 미술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에드워드 존 노블 센터

에드워드 존 노블 교육센터는 회의, 학습, 비디오의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관람자들은 전시에 관계된 교육 자료와 다큐멘터리 비디오, 설치물 등을 볼 수 있다.

교육정보센터(Teaching Information Center)에서 현대미술에 관한 자료들을 5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교사들에게 제공하며, 슬라이드와 비디오테이프를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사) 자원봉사 프로그램

뉴욕근대미술관의 교육부서는 자질 있는 지원자들에게 자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교육 센터, 방문객 센터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공공 프로그램,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조하게 된다.

미술이나 미술사 교육에 지식이 있고, 외국어나 수화가 가능한 사람, 대중 앞에서 말하는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 가능하다.

3-2. 워싱턴국립미술관

(the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워싱턴국립미술관⁴¹⁾의 교육부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교 프로그램,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용 자료, 인턴쉽과 연구원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3-2-1. 교사와 학교 프로그램

(가) 스쿨투어

미술관 관람을 통한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제별 관람에서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도록 고안되었다. 다양한 작가들과 주제, 기법, 양식 등이 탐구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한 관람에서 다루어진다. 학생들의 단체 관람은 특정 학년에 맞춰서 세분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교육매체(예비 교재, 교수용 패키지, 비디오나 기타 등등)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술관의 소장품을 통해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과 자료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워크숍은 다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며 학습자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수업은

41) <http://www.nga.gov/> 2006년 10월3일 검색 기준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에 관한 교육용 자료가 제공되며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며,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다.

(나) 교육용 자료 프로그램

150개 이상의 교육용 자료가 교육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료로 대여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에서의 국가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론적 성격을 가지고 미국 미술, 고대 미술, 아시아 미술, 바로크와 로코코, 중세와 르네상스, 리얼리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20세기의 미술, 조각 등의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자료의 종류도 각 주제별 슬라이드, 비디오디스크, 비디오카세트, 영화, 멀티미디어, PDF 파일과 관련 도서 등으로 다양하다.

3-2-2. 인턴쉽과 연구원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은 뉴욕근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미술관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의 각 부서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인턴 프로그램은 큐레이터와 각 부서의 팀장이 권장하며 경쟁적 선발과정을 거쳐 대학원이나 대학 3학년 이상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과정과, 여름을 이용한 방학 중에 학생들 혹은 관심 있는 누구나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인턴쉽 과정의 두 종류가 있다.

1983년 이래 보존과학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존 과학자를 양성하고 미술품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년 동안 회화, 종이, 오브제, 과학적 연구 분야 등에서 훈련을 쌓게 되

며, 미술품의 보존뿐만 아니라 간행이 가능한 연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관람 안내를 맡는 도슨트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며, 영구 소장품이나 특별전에 대하여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게 흥미 있는 관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미술정보센터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에 미술 정보를 제공하며 소장품이나 갤러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받는다. 도서관이나 영화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3-2-4. 전시 관련 프로그램

일반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영구 소장품이나 특별전에 관해 다양한 내용의 관람과 강의를 제공하는 갤러리 강좌, 큐레이터나 관장이 녹음한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를 대여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관람이 있다.

또한 미술관에서 훈련받은 도슨트가 가이드 하는 관람 프로그램과, 별도의 강당에서 일요일 2시에 미술관 직원이나 학자를 초빙하여 미술사적인 주제나 작가를 다루는 학술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3-2-5. 가족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게임이나 다른 놀이를 통해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북을 판매하고, 4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속의 이야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3-2-6. 영상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은 소장품이나 현재 전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비디오나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와 매주 미술관 강당에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화제작자나 학자들을 초청하여 대담을 갖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과 미술가나 미술에 대해 다룬 영상물도 포함된다.

3-3. 클리블랜드 미술관(The Cleveland Museum of Art)

클리블랜드미술관⁴²⁾은 미술관 설립이나 미술품의 소장예 앞서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했던 미술관 중의 하나이다. 1915년부터 ‘미술사와 교육부서(Department of Art History and Education)’라는 명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가 1년 후인 1916년에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개관하였다.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초대관장인 셔먼 리는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교육부서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그는 미술관이 그 지역 사회의 교육의 장이며,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육 사업의 중

42) <http://www.clevelandart.org/>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다.

현재 클리블랜드 미술관에는 4-5세의 어린이에서 은퇴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1. 전시 관련 프로그램

전문 가이드에 의한 미술관 관람은 15명 혹은 그 이상 인원의 단체에 가능하며, 관람의 주제는 미술관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제에서부터 관람을 원하는 단테에 의해 요청된 추가적인 주제까지 망라된다.

관람자 측이 음악이나 무용, 역사와 같은 주제와 관련된 관람을 요청하면 미술관 측에서는 이 주제와 소장품을 관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술관 소장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기 연습을 포함한 관람이 가능하다. 약 1시간 30분간의 창작 과정을 통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이런 가이드 관람 또는 셀프 가이드 관람은 미리 예약되어야 하며, 미술관 측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3-2. 강좌 프로그램

(가) 강좌

정기 강좌와 특별 강좌로 구별하고, 정기 강좌는 미술사를 시대별로

다른 것으로 주중 오후와 토요일 아침에 미술관 전문 직원에 의해, 특별 강좌는 미술사 전반이나 기획전에 대해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나) 갤러리 강좌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기획전이나 특별전에 관계된 특정 주제를 다루고, 다른 날에는 주요 소장품과 관계된 주제를 다룬다. 15명에서 30명의 관람객이 한 조가 되어 설명을 듣게 되며 원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3-3. 기타 프로그램

교육부서의 전문 교육가들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상급 미술사 코스를 위한 강의를 제공한다. 이 코스를 끝내고 좋은 점수로 국가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학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3-4. 교사 자료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프로그램의 하나인 교사자료 센터는 모든 학년과 모든 과목의 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교사들이 미술관의 소장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수업에서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보충자료로서 사용하는 방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술 교재나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워크숍을 통해 각종 강의를 마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슬라이드 자료인데, 교육부서의 전문 직원과 큐레이터들이 시대별, 주제별로 슬

라이드 패키지를 만들어 대여하거나 판매하기도 한다.

교사들과 교육부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3-5. 어린이를 위한 토요일 강좌와 여름 강좌

학기동안에는 토요일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주중에 시행하는 강좌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미술관 소장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교육부 직원들이 강좌를 진행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1박 2일로 다른 미술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술관 회원들의 경우 예약을 포함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장학제도도 가능하다.

3-3-6. 교육적 전시회

미술관의 교육부서에서는 미술관의 특별전이나 주요 기획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대중들을 겨냥하여 교육적 전시를 조직한다.

전시는 교육부서의 강의실, 시청각실, 강당 등이나 중앙 부분의 회랑 공간을 이용한다. 또한 순회 전시도 이 카테고리에 드는 전시이다. 주로 특정한 주제에 의한 전시로 꾸며지며 미술관 기획전이나 특별전에 비해 교육적 목적으로 기획되고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3-3-7. 관외 전시 프로그램

교육부서의 관외 전시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 도서관과 다른 갤러리를 미술관의 확장된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전시물과 설명적인 시청각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교육적 전시회를 기획한다.

이 전시에서 활용하는 전시물은 미술관의 소장품보다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나 일정 주제로 꾸며볼 수 있는 작품들로, 미술관 측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17,000여 점의 소형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3-3-8. 특별 이벤트

미술관 교육부서에서 지원하는 수요일 저녁의 페스티벌로 매년 7월 달 동안 열린다. 이 이벤트는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과 영상 프로그램, 미술 강좌, 실기 워크숍, 파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별 가족별로 저녁식사 대신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며, 미술관은 7월과 수요일은 개관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로 확장하여 문화영화나 극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3-3-9. 시청각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대본을 녹음한 오디오 자료와 간단한 컬러 슬라이드 자료의 상영이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청각실에서 수시로 상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미술관 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상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3-3-10. 교사들과 단체 관람을 위한 서비스

교육부서에 예약을 하면 미술관 전문 교육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미술관에서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들과 단체관람의

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3-3-11. 영상 프로그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규적인 영상 프로그램으로 미술과 미술가들에 관한 영상물 상영이 수요일 점심과 저녁에 제공되며, 현대미술 부서에서 선택한 장편의 영상 시리즈가 연중 상영된다.

3-3-12. 관람개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계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3-3-13. 인턴쉽 자원봉사 프로그램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는 9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치 있고 흥미 있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3-4.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휘트니미술관⁴³⁾은 20세기 미국 미술의 수집, 보존, 해석, 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술관으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관람객- 즉 미술관 관람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

43) <http://www.whitney.org/>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장품들을 다양한 관객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다 학문적, 다 영역의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다.

미술관은 일련의 흥미와 욕구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을 인식하고, 그들이 특정 작품과 전시회에 대해 충분히 감상하도록 돕고 있다. 전시 관람을 돕는 프로그램, 공공 프로그램, 학교와 교사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휘트니 미술관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3-4-1. 전시 관련 프로그램

(가) 단체관람

매일 제공되는 성인 대상의 무료 가이드 관람이다. 전시 가이드는 미술관 경험이 풍부한 도슨트에 의해 행해지며, 단체의 경우 예약이 요구되어 모든 갤러리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다.

(나) 미국 목소리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의 발전사를 들려주는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관람하면서 큐레이터, 학자, 작가들의 음성을 접할 수 있다. 가족에게는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오디오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다) 공공 프로그램

20세기와 동시대 미국 미술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강연, 심포지엄,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다. 비평가, 학자, 예술가들이나 초청 강사 등이 참여한다.

3-4-2.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교 교실의 확장으로서 미술관은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적이고 의욕적인 미술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미술관의 가이드에 의한 관람, 둘째, 미술관 전문 교육가에 의한 교내 슬라이드 강연과 미술관 방문 관람을 통한 토론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셋째, 현대미술과 쟁점들에 관한 짜임새 있는 학습에 관심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 학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3-4-3. 독립 연구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비평연구 프로그램이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미술 작품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인 대학생들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작가, 비평가, 사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 초빙 강사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은 매주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며, 이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이론과 비평론 등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토론을 경험하게 된다.

3-4-4. 가족 프로그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성인이 미국 미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가족놀이 family fun!>는 선정된 전시와 관련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토요일 아침에 전시를 관람하고 가이드 관람, 실기 워크숍, 이야기 수업, 미술가와의 대화 시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4-5.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과 후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거나 가족, 지역의 노인들과 미국 미술과 문화에 대해 토론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미국 미술에 대해 지식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5. 휴스턴미술관(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미술관⁴⁴⁾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폭넓은 관람객을 교육하고 미술관에 다양한 사회집단을 수용하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글라셀 미술학교(glassell school of art)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미술 학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실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44) <http://www.mfgh.org/>

이외에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관람, 성인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5-1. 관람 프로그램

(가) 그룹관람

10명 이상의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슨트에 의한 가이드 관람은 45분 정도 소요된다.

(나) 이야기 단체

미술관 측에서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단체에 도슨트를 파견하여 무료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도슨트

성인과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가이드 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미술관에서 훈련시킨다.

(라) 바유 밴드(bayou bend)

바유밴드는 재산가인 이마 호그(Ima Hogg)가 수집한 미국의 장식 미술품들을 모아 놓은 집이다. 뛰어난 수집품과 함께 건축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3-5-2. 가족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을 가족들의 관람을 위한 날로 정하고, 소장품과 전시회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3-5-3. 교사 프로그램

미술관련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 교사 워크숍

교사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강의, 시연, 실기 활동, 상호작용 관람 등을 통해서 미술관의 소장품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참여 교사들은 시각 자료가 있는 교수용 패키지와 학급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료증들을 받는다.

(나) 교육자를 위한 저녁

생생한 강의, 관람, 미술 설명회와 워크숍으로 미술교사들 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학교 수업의 학습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미술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며, 소정의 참가비가 필요하고 음식이 제공된다.

(다) 스쿨 투어

- 가이드 관람 / 방과 후 관람
- 셀프 가이드 관람
- 학교 단체는 글라셀 미술학교를 미리 예약한 경우 관람할 수 있다.

(라) 교사 자료센터

미술에 대한 비디오, 슬라이드 세트, CD-ROMs 등을 대여하는 교육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는 2주 동안 무료로 자료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가능한 자료의 목록은 공개된다. 목요일 저녁 4:00-8:00 사이에 수업을 위한 자료를 빌리고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3-5-4. 글라셀 미술학교

글라셀 미술학교는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미술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4-18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3-5-5. 인턴쉽 프로그램

미술관은 여름 동안 대학생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미술관의 다양한 직종들의 임무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6월부터 8월까지 10주간 전일 근무해야 하며 소정의 급료도 받는다.

3-5-6. 영상 프로그램

진행 중인 전시와 관련된 영화부터 이란과 동남아시아의 영화, 예술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술관의 영화 비디오 부서를 지원하고, 비공개 시사회, 무료입장,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

3-6. 메트로폴리탄미술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미술관⁴⁵⁾은 그 규모에 있어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여

45) <http://www.metmuseum.org/> 2006년 10월3일 검색 기준

러 문호와 시대를 망라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이드 관람은 미술관에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미술관과 소장품에 대해 관람하는 것이다. 무료이며, ‘미술관 하이라이트’ 관람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갤러리 강좌는 소장품 중 특정한 주제나 특별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술관 큐레이터와 외부 학자,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석한다. 또한 미술관 소장품과 특별전에 관한 해석을 담은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휴대용 시디롬 플레이어를 임대료로 받고 제공한다.

관람자들이 자신들의 관람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특별전이나 역구 소장품과 관련된 무료 강연을 제공하기도 하고 미술관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이 특별전이나 입관식 등과 관련하여 1년에 몇 차례 열린다.

3-6-1. 예약이 필요한 콘서트와 강연회

저명한 음악가에 의한 콘서트와 미술관 큐레이터, 미술, 건축 음악, 역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강연으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등록이 필요하다.

3-6-2. 단체관람

미술관 직원에 의한 가이드나 자체적인 가이드에 의한 관람, 슬라이

드 강연, 할인된 오디오 가이드 등이 학교, 성인 등의 단체관람에 제공된다. 영구 소장품과 현재 전시에 대해 진행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3-6-3. 가족 프로그램

어른을 동반한 5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이며 가이드를 위한 인쇄물과 이야기하기, 스케치, 주말에 상영하는 ‘가족 영화 프로그램’등이 제공된다.

3-6-4. 회랑에서의 프로그램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한 부부인 회랑은 중세유럽의 미술품과 건축을 위한 장소이다. 일반인들에게 중세음악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6-5. 학생 프로그램과 교사 프로그램

방과 후나 주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으로 부모나 교사들이 같이 실제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토론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스스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h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미술관이 워크샵을 개설하여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가 연계된 다 학문적 교수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3-6-6. 영상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나 영구 소장품에 관한 영화와 비디오를 연

중 무료로 상연하며 가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3-6-7. 지역사회와 일터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뉴욕이나 그 외 지역의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등의 단체를 위해 도서관, 대학, 직장 등으로 찾아가서 슬라이드 강연이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6-8.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말의 가족 프로그램은 장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것이며, 미술관의 모든 장로를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고, 수화를 통한 작품 해설과 적외선 소리증폭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각적으로 이미지를 해석한 관람, 만져보기 관람, 확대 인쇄된 브로셔 등이 제공된다.

3-6-9. 여행 프로그램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주최하는 해외여행을 통해 작가고아 미술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술관 전문가와 특별한 볼거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7. 보스턴순수미술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보스턴순수미술박물관⁴⁶⁾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밀도 높은 미술관이다.

3-7-1. 개론안내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갤러리를 방문하는 관람자는 소장품에 대한 개론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소장품에 대한 안내>, <유럽 회화와 장식미술>, <미국 회화와 장식미술>, <아시아, 이집트, 고전미술> 등으로 주제가 나뉘어져 있다.

3-7-2. 갤러리 강좌, 코스, 강연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진행되고 있는 전시 등과 관련된 갤러리 강좌, 작가의 강좌, 큐레이터의 강좌 외에 패널디스커션(panel discussion),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3-7-3.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가) 어린이의 방

6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갤러리와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연극, 시, 음악 같은 것들을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족을 위한 곳

46) <http://www.mfa.org/>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어른과 함께 참석한 4살 이상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갤러리에서의 스케치, 퍼즐,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스스로 배우기 활동(Self-guiding Activities)’ 프로그램이다.

3-7-4. 보스턴 건축 여행

보스턴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역사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은 역사적이면서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버스 투어를 제공한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로 여행하면서 중요 건물의 내력과 해설을 제공한다.

3-7-5. 교사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미술관에서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미술작품에 대한 관찰력과 비평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의 관람은 미술관 교육 전문가에 의한 가이드 또는 교사들에 의한 자체 가이드 모두 가능하며, 미술관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들과 접촉하여 연령별, 학년별로 적절한 교수방법에 대해 미리 의논한다. 미술관 교육부서 측에서는 이러한 사전의 준비 작업을 위해 반드시 관람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3-7-6. 영상 프로그램

현재 전시와 관련된 영상물 외에도 다양한 영화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인간의 권리로 지켜보는 국제영화제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독일의 새로운 영화 New Films From Gemany>, <보스턴 영화작가들 Boston Film Artists Present>

같은 주제들로 상영하며, ‘영화 친구들’이라는 회원제를 실시하여 비공개 시사회와 영화상영 스케줄을 제공한다.

3-7-7. 인턴쉽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교육부서와 공공 프로그램 부서에서 일하게 되며, 갤러리 강좌, 관람객 조사, 강연회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미술사 또는 관련학과 대학원 정도의 학력의 소지자로 작문과 연설에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4. 영국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영국의 미술교육은 SEA(Society for Education though Ar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의 기계문명이나 물질문명으로부터 정신성을 확보하고 예술성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립 미술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미술관에서도 지역 주민의 관심과 더불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적인 등록을 거치지 않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이 가능하여 자생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관 위원회 MGC(Museum & Galleries Commission)에서는 각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활동을 하고 민간기구인 미술관 협의회(Museum Association)와 협의를 거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선책을 수립한다. 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양적, 질적인 면에

서 상당한 수준인 것은 정부와 여러 민간 기구의 보조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4-1. 테이트갤러리(Tate Gallery, Modern)

테이트 모던⁴⁷⁾은 강좌, 코스, 영화, 키퍼런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날마다 제공되는 무료 갤러리 관람과 강좌, 학교/가족/지역사회 대상 프로그램,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4-1-1. 강좌와 관람

진행 중인 전시나 소장품 중 중요한 작품에 초점을 맞춘 무료 안내의 관람과 강좌 등이 제공된다.

(가) 가이드 투어 - 무료로 제공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하루 네 차례의 가이드 투어가 있다.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nude/body/behavior의 하이라이트
- 역사/기억/사회의 하이라이트
- 풍경/재료/환경의 하이라이트
- 정물/오브제/실제 삶의 하이라이트

(나) 오디오 투어 - 영어뿐 아니라 몇몇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47) <http://www.tate.org.uk/> 2006년 10월3일 검색 기준

<표 16> 오디오 투어 프로그램

소장품 투어	바넷 뉴먼(Barnett Newman), 데이비드 호크(David Hockney)등의 작가별로 제공되어 작가에 대한 논평, 역사 기록들, 비평가, 음악가, 학자, 작가들의 감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렉터 투어	전시 작품 중 하이라이트에 대한 관장의 개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어린이 투어	작가인 마이클 로젠(Michael Rosen)이 녹음한 것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다) 갤러리 토크

갤러리 토크는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관객층을 겨냥하여 진행된다.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테이트 강좌(tate talks), 영상 세미나실에서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집중 강좌(in focus), 금요일 오후 강좌(friday at five)등이 있다.

4-1-2. 영상 프로그램

강당이나 영상 세미나실에서 작가들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등을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4-1-3. 코스

테이트 모전의 코스는 갤러리의 혁신적인 전시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정체성, 정치, 이념 등에 대해 개설되어 있다. 테이트 모던갤러리와 도시문학연구소의 협동 프로그램으로 갤러리에 대한 소개를 원하는 성인을 대상의 온라인 코스가 있다.

4-1-4. 가족 프로그램

테이트 모던은 성인과 동반한 어린이들이 현대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갤러리 관람 프로그램 워크숍 등은 게임이나 다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4-1-5. 학교 프로그램

(가) 갤러리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감상자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워크숍은 전시회 중에 갤러리에서 열리며 2시간 이상 지속된다. 인원수는 효과적인 단체 활동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15명까지로 제한한다.

워크숍은 모든 연령의 그룹에 적합하며 갤러리 직원, 작가, 역사가, 시인, 연기자, 음악가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

(나) 비어있는 캔버스

15살에서 23살 사이의 동년배의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단기 창작 프로젝트, 작가와의 토론회, 응용 미술, 웹 디자인, 사진 비디오, 라디오 방송, 마케팅 등의 다양한 실습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작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4-1-6. 지역사회 프로그램

테이트 갤러리는 소외된 노인층을 비롯한 지역단체나 시민들이 미술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현대미술에 친근해질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17> 데이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Talks & Discussion	- 전문가 강의와 예술가 이야기 그리고 논쟁
Syposia & Seminars	- 1년에 6번 정도 열림
Free Lectures	- 저자/ 큐레이터/ 학자들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Gallery Tour & Groups	- 직원 안내 투어/ 첫 번째 일요일 통역안내 투어
Film	- 다큐멘터리 영화나 비디오 상영
Music & Performance	- 전시에 음악과 퍼포먼스 제공
Courses & Workshop	- 고대/ 근대/ 현대 영국 미술 스터디 과정
Families	- Art Trolley :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게임 등 재미있는 활동을 통한 미술활동 - Tate Tales : 스토리텔러와 시인들과 함께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함 - Artspace (The Studio) : 놀이 공간/ 게임/ 책 등을 즐길 수 있고, 빌릴 수 있다. - 기타 : 어린이 동반 방문시에는 픽업 트레일/ 놀이도구/ 어린이를 위한 오디오를 제공하며,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 제공
Community Groups	- Gallery Talk - Workshop - Ststring Point : 언어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Youth	- Tate Forum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 창조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애니메이터/컴퓨터 게임 디자이너/영화감독)가 초대되어 포럼이 진행됨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예술의 응용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

4-2.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표 18> 영국국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⁴⁸⁾

Teachers' note	- 작품해설
Take One Picture	- 전시와 그 웹사이트 소개
Development and Training	- 하루 동안 진행되는 초/ 중/ 고 선생님 교육프로그램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ture in Focus :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25분 동안 작품 설명 - Family Talk : 토요일 일요일 11시 30분 가족들을 위한 설명 - Guided Tour : 가이드와 함께 갤러리 투어/ 투어는 매 시간에 마칩 - 10 Minute Talk : 특별한 작품에 한해서만 짧고 생생한 매 10분마다 마칩 - Art through Words : 시각장애인 혹은 근시안 위한 오디오 가이드와 점자책 가이드 - BSL Interpreted Event : 수화 서비스 - Art Workshop : 직접 작품 만들기/ 4세부터는 11시 아동과 가족대상 15세부터는 12시부터 아동과 가족대상 - Second Weekend Event :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 그림 그리기 - 기타 : 회의/ 간기교육과정/ 강의/ 학술행사

48) <http://nationalgallery.org.uk/> 2006년 10월3일 검색 기준

4-3. 스미소니언 허쉬혼미술관과 조각공원 (Smithsonia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4-3-1. 갤러리 강좌와 강연

금요갤러리 강좌는 무료로 제공되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미술관 전문 교육가나 관장이 주관하여 미술관의 전시 작품이나 소장품과 관계된 강좌를 연다.

또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 전시 중인 작가와 전시 담당 큐레이터와 기타 전문가와 같이 토론하게 되고, 갤러리 강좌는 전시를 관람하면서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원생의 설명을 듣게 되며, 자료센터에서는 관련 단행본이나, 카탈로그, 출판물 등을 보면서 전문가와 전시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다.

4-3-2. 성인 프로그램

(가) 성인을 위한 미술탐험 워크숍

미술에 흥미 있는 성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관람이나 전시에 관한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미리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나) 저녁시간의 미술

저녁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미술에 관심이 많은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다과와 실습활동, 갤러리 강좌, 영상물 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4-3-3. 어린이와 가족 프로그램

(가) 어린이 미술

어른을 동반한 6살에서 9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예들 들면, 조각공원이나 소장품 중 몇 가지 가면을 보고 나서 스티커나 단추, 깃털 같은 것들로 가면을 만들어보는 <가면 만들기 Mask Making>등의 주제가 있다.

(나) 미술 향상

토요일 오전에 미술관의 지하에 있는 ‘미술을 증진시키는 방 (Improve Art Room)’에서 진행된다. 5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같이 온 어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제안서’에 따라서 갤러리를 감상하고, 자기 자신의 작품을 만든 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가족 가이드

미술관에서 마련한 안내 책자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근현대미술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짜여있는 셀프 가이드 투어용 책이다.

(라) 교사들을 위한 자료

교사 워크숍과 교육용 패키지, 학교투어가 이루어진다.

4-3-4. 영상 프로그램

(가) 독립 프로그램

고전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며 작가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작가의 작품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도 한다.

(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정오에 최대 30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셀고르키, 도날드 주드 같은 작가들의 다큐멘터리 필름링 상영된다.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감상할 수 있다.

4-3-5. 접근성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나 준비되어 있으며 극장과 대강당에는 오디오 루프(Audio Loop)가 갖추어져 있다.

4-3-6. 도슨트 프로그램

열의와 재능을 갖춘 자원봉사자 100명가량이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학교단체나 일반인들이 영구 소장품이나 특별전을 관람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들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훈련을 받으며 미술관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학교단체 워크숍 등에서 활동한다.

4-3-7. 인턴쉽 프로그램

허쉬혼 미술관은 매년 여름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10주간 진행하고 있다. 인턴들은 미술관 각 부서에서 일하게 되며 학점이 인정된다.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1년 기간의 인턴쉽은 큐레이터를 도와서 영구 소장품과 특별전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심포지엄, 페스티벌 등의 보조 교육자, 출판부의 편집 보조자, 보조 보본연구원 등으로 참여한다.⁴⁹⁾

4-4. 브리티시 미술관 (The British Museum)

영국 런던에 위치한 브리티시 미술관⁵⁰⁾은 1753년 의회에 의해 배우려하는 그리고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함일 뿐 아니라 일반인을 그리고 사회 공공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브리티시 미술관은 미술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며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미술관 담당자와 직원들 그리고 큐레이터들의 친밀한 업무 협조로 배움의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브리티시 미술관은 항시 미술화가들과 수화통역자들이 있으며, 미술 관람과 함께 미술품의 경향에 맞는 런던 심포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술과 음악을 결합시켜 방문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미술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4-4-1. 큐레이터에 의한 갤러리 토크(Gallery Talks by Curators)

브리티시 미술관에서는 각 전시회나 특별 프로그램들에 전문 큐레이터들로서 진행을 담당하게 하여 전시회나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들을 통한 정확한 미술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49)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서울, pp.148~182

50) <http://www.thebritishmuseum.ac.uk/>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4-4-2. 가족 미술관 방문(Family Museum Tour)

미술관은 어린이들에게 미술관의 방문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주말·휴일을 이용한 손쉬운 그리고 자유스러운 방문이 되기 위하여 각종 흥미로운 프로그램들과 특별전시를 꾸미고 있다.

4-4-3. 학교 방문(School Tours)

미술관은 학교 학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각 교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큐레이터나 미술관의 투어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여러 학생들과 그룹별 방문의 다른 취향과 관심에 알맞게 맞춘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이색적이다.

- 1) 학생 개인별 그리고 그룹별 방문 프로그램
- 2)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 3) 기간별 특수 방문 프로그램
- 4) 교사들을 위한 자료 프로그램

또한 각 국가와 그 국가가 갖는 문화에 대한 브리티시 미술관의 출판 자료 프로그램, 비디오 프로그램, 인턴쉽(Internship) 프로그램 등이 있다.

4-5. 헤이워드 갤러리 (The Hayward Gallery)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헤이워드 갤러리⁵¹⁾는 미술작품이나 미술에 관한 신속한 정보와 지식을 전화나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손쉽게 미술관과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시각적 요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미술작품의 전시와 함께 많은 대화와 토론을 방문객들에게 유도한다는 것이 이 박물관의 특징이다. 헤이워드 갤러리의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4-5-1. 토크 핫라인(Talk Hotline)

전화로 미술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긴급한 사항에 대한 조언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5-2. 교사 워크숍(Teacher's Workshops)

교사들은 실제로 교실에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관계되는 모든 자료와 전시회에 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치 않는 예술의 세계를 토의하고 탐구하게 된다.

4-5-3. 미술관 안내(Gallery Guides)

화가가 직접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방문객과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51) <http://www.haword.org.uk/> 200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4-5-4. 번역 비디오 프로그램

헤이워드 미술관의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술관의 전시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미술관을 방문한 모든 방문인들에게 전시품을 접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주제나 화제(Issue)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갤러리 토크와 안내 프로그램이다.

4-5-5. 화요일 갤러리 토크(Tuesday Gallery Talks)

이 프로그램은 화요일마다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강연자를 초청하여 Francis Bacon의 작품세계를 여러 강연자 개인의 견해를 발표·토의하는 것이다.

5. 일본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일본의 미술관정책은 문부과학성의 문화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문화청은 예술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문화부와 문화재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재부로 나누어지는데, 문화재부 미술학예과 미술관·박물관·역사박물관실에서 미술관 정책을 담당한다. 문화청은 1998년<21세기를 향한 미술관·박물관 진흥정책-뮤지엄 플랜>을 발표하여 다음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미술관·박물관을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

둘째, 보다 매력적인 국립미술관 박물관의 전개

셋째, 우수한 미술품 등에 친숙해지는 기회 확대

넷째, 미술관·박물관의 활동기반의 정비

과제와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로 수장품의 충실, 자원봉사활동 확대, 관람객 서비스 충실, 시설의 충실 등의 제시되었다.

5-1. 일본의 국립미술관

일본의 국립미술관인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과 4가지를 비교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동경 국립미술관은 일반적으로 가이드 위주의 강의와 갤러리 투어 등을 진행하고 일반 대중을 위해 미술관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미술관의 전시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사와 공예 갤러리 등에 대한 기사와 전시품에 대한 분석과 다른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근대 일본미술의 걸작품들을 가이드 해주는 책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일본미술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작품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구소장품을 가이드해 주는 책이다.

일본의 국립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급교육과이다. 일본은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국립미술관이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일본국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성격	도쿄국립 근대미술관	교토국립 근대미술관	국립 서양미술관	오사카국립 국제미술관
전시해설 및 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회 : 기획전 10회 - 갤러리 토크 : 기획전 10회 : 본관소장품전12회 : 공예관소장품전 - 연속 강좌 3회 - 강연회 : 상영영화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회 : 기획전 마다1~2회 - 심포지움 : 국내외 대학과 협력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회 : 기획전마다 2~3회 - 갤러리 토크 - 슬라이드 토크 - 이어폰 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 : 강연회 4회 - 갤러리 토크 : 7회 - 상영회 : 2회 - 비디오 상영 : 4회
미술관 관계자대상 연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레이터 실무연수 - 영화제작전문가 양성강좌 - 국립서양미술관 인턴쉽 			
타 기관 연수 대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청에서 실시하는 중급학예원 연수 - 대학생 학예원 자격취득을 위한 박물관 실습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 			

6. 사례를 통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역사가 다르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관 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1. 각 나라의 미술관 교육

미국의 미술관들은 대중과의 접촉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의무적으로 미술관의 지체 내에 두고 있다. 미술관 교육은 다양한 미술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술관 교육철학이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교육철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학·감상을 강조하는 것, 둘째, 미술사를 중시하는 것, 셋째, 학제간의 접근과 넷째, 관람객에 대한 사회교육적인 입장을 들 수 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시설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술관 활동 또한 미술관 교육 담당자, 지역의 교육가, 학교,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일본의 미술관은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이 국립미술관은 도쿄국립 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도쿄), 국립국제미술관(오사카),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을 통합한 조직이다. 네 개의 미술관은 독립행정법인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흡수 통합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각 관별 교육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협력체계가 강조된 조직형태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점점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맞는 교육적인 활동도 다양화되고 있다. 각 미술관마다 자신들만이 특색을 가진 새롭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미술관 교육의 외국에 비해 그 역사라 너무나 짧고,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미술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몇몇 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미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사를 위한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연구 결과 해외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해외 미술관들은 미술관내에 교육담당부서를 두어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사전준비를 통해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각 미술관에서 지향하는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성인의 흥미와 현실에 맞는 발견, 관찰, 재구성, 비교, 조작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다루어 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미술관 교육의 장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와 시민기관,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소장품과 전시에 기초한 칼라 슬라이드 프로그램, 교육용 자료집, 비디오 자료집이 주 내용이다. 감상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활동과 여러 가지 유형의 워크숍, 미술관에서 특별히 기획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바는 미술작품을 보고, 즐기고, 서로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미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와 동반한 가족대상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가족대상프로그램은 유치원아동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미술관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미술과 자연스럽게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셋째, 교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종 강연회나 워크숍을 통해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관의 소장품과 미술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교사들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표형과 감상활동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담당 큐레이터 양성 등의 인턴쉽 교육과정이 있다. 이는 대학교육기관의 몫을 맡게 되는데, 미술관 자체의 현장성이라는 장점을 그대로 살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미술관 지원제도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술관을 짓고, 소장품을 확대하고,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실천해 나가면서 미술관을 지역문화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시제상의 혜택도 마련하고 있었다.

6-2. 사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각국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대상별로 구분해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해외의 미술관과 차이가 없이 모든 대상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선 양과 질에서 차이가나며 프로그램의 유형도 단순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분석에서 살펴 본 프로그램들의 특징들을 묶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외의 미술관은 미술관의 현장성과 실물교육이라는 특징을 잘 살린 전시와 소장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약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루브르 미술관의 갤러리 토크에서는 풍부한 컬렉션을 이용하여 주제별, 시기별, 작품별, 컬렉션별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고 있을 만큼 소장품을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둘째, 국내의 미술관 교육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 못하다. 우리나라는 교육프로그램 유형을 미술이론과 실기교육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이론 강좌를 사조별, 작가별 로의 분반이나 입문반, 심화반 또는 연구반 등으로 전문성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단순강좌에서 토론이나 워크숍, 감상교육과 실기 교육이 통합된 프로그램과 음악회 등 타 장르와 통합된 복합 형태로 제공된다.

셋째, 국내의 미술관 교육은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성인과 어린이, 일반인과 전문가 정도의 구분만을 가진 국내 프로그램은 보다 세분화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인을 성인층과 노인층으로 구분하고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어야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미술관의 사회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들은 예산 및 교육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으로 각 미술관의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담당자에 의한 미술관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의 현황을 살펴볼 때 대다수의 미술관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또 미술관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관람자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V. 결론

오늘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한 변화에 맞추어 순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 정규적인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평생을 교육과정으로 일관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우리일생에 있어서 인간의 참된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교양이나 지식분야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정규교육의 부설기관이나 사회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관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성인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성인층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노인, 장애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생성, 진행 한다. 그러나 국내의 미술관 교육은 자리가잡힌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대중의 미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관심,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형식으로 제공되며, 현대의 미술, 문화 교육적 가치에 따라 점차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실행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교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미술관 교육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미술관

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교육과 전문인 교육으로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이 이론중심의 일반인 교양교육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 교육만 하더라도 상·중·하의 수준별로 나누어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대중의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이름을 달리하여 요일별로 다른 테마를 가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미술관은 일반인을 위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년층, 노년층,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미술관 교육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과 예술작품과 전시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활동지, 교재의 개발과 더불어 미술관련 서적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 감상과 미술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술관은 지역의 유관행정부서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이며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야한다.

다섯째,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문화예술기관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이에 중앙의 해당관서와 예술기관에서의 공동으로 교육을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일곱째, 전문학예사나 큐레이터의 전문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비하여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변화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덟째, 유년층, 노인층,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공간 확보이다. 이들은 이동과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편리한 이동 경로와 공간 등이 확보되어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비상시 긴급히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아홉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많은 미술관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다. 대다수의 미술관이 도심과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Web을 기반으로 사이버 교육을 기획하고, 현재 전시나 소장품을 주제로 한 CD타이틀 등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쉽게 미술교육프로그램에 다가가도록 하며 다양한 홈페이지의 구성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한 가지씩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특색에 맞는 미술관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면 무한한 발전성이 엿보이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미술관에서는 모든 관람자가 전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유년층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과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람객들의 눈높이 맞추어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예술문화를 통한 삶의 질은 매우 윤택하며 풍요로워지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 윤양희, 초등학교 교과과정 해석, 교육과학사, 1993
- 교육부,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1994
- 국립현대미술관,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서울, 2005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설, 서울, 1996
-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어린이 미술교육 백서, 2004
- 진영선, 한국 미술교육의 문제와 전망, 고려대학교 사대논총, 1994
- 노부자, 미술감상과 교육, 조형교육, 1997
- 권이중, 이상오, 평생교육-실제편, 교육과학사, 2000
-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1944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백서, 2002

<정기·비정기간행물 및 소논문>

- 양지연,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미술관, 월간미술 1월호, 1996
- 유근준,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교육, 현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1992
-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논문집 제1호, 1998
- Dr.Liebelt, 독일에서의 뮤지엄 교육현황, 조형교육 8호, 1992
- 안금희, 미술관 교육의 철학과 실제, 현대미술연구, 국립현대미술관, 1995
-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학위 논문>

- 유광숙, 미술관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수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현황 및 전시관력 교육프로그램 위한 제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아람,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정아, 초·중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관 교육의 연계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연수, 현대미술관의 미술교육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조지현, 현행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현주, 미술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uniform resource locators>

<http://www.moca.go.kr>
<http://seoulmog.org>
<http://www.leeum.org>
www.sac.or.kr
www.museum.go.kr
<http://www.louver.fr>
<http://www.moma.org/education/>
<http://www.nga.gov/>
<http://www.clevelandart.org/>
<http://www.whitney.org/>
<http://www.mfgh.org/>

<http://www.metmuseum.org/>

<http://www.mfa.org/>

<http://www.tate.org.uk>

<http://nationalgallery.org.uk/>

<http://www.thebritishmuseum.ac.uk/>

<http://www.haword.org.uk/>



Abstract

An Analysis of Museum Educational Programs in View of Better Education

Seo, Lee-Jae
Dep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dward Mores has said, "Agree to art gallery let people raising a discerning eyes. but disagree to exhibition of works of art for people's satisfaction who pursue sensuous enjoyment of beauty." This intimate a new role of the present Museum. An Museum is not a space for a few, but for everyone enjoying together there, and it's educational role is on the rise with the role of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existing works of art at the same time. Here it mentioned 'educational role' say let the general public calling at the Museum, helping cultural participant activities and raising ability of recreate and possess culture.

Therefore, education activity regarded as important as planning exhibition in Museum these days. Museum as a place of social education

become changed as a place of groping new direction of art education, it come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suit to diverse taste and an age group.

In this dissertation, focused -oriented Museum education among three research with recognizing Museum education accomplished in extension of school education, or through the connection of it. Though education programs are distributed in each Museum, it's course is dull, and focusing on the theory, so it is wanting improvement devices immediately.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recognize it's importance, and compare and analyze the cases of internal and external, after that, discover it's problems and grope evolutive improvement plans.

For this job, in chapter two, examined concept, history, and importance of Museum then, inspect alteration process of recognition about changed of the Museum education.

In chapter three, by checking it's growth process as a lifelong education organ, present task for development and prospect, and contemplate about it as a place of social education.

The chapter four contains practical case study, by presenting the cases of internal Museum and fifteen places of external, examined country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Museum education and found somethings in common. Also, pointed out it's problems through management.

In chapter five, arranged notions on the basis of the cases investigated and presented devices to be closer between public and Museum and

direction of the road before the art education.

While research processing, it discovered that education program presented in name only, there are too many formal contents in it. Programs for commons mainly consist of theory-oriented lessons, and practical skill education ceased in functional aspect with learning western painting, oriental painting, carving and modeling, calligrapher, etc, so understanding and creativity-oriented education contents so weak.

This study comes to the below conclusion for improvement devices. First of all, development of segmented education program is wanting for subject class and various types. Also, lively publicity activities about Museum education and through the offer freely reading books related art, and positive effort to help appreciation of art and Museum education, together with development pamphlets and teaching materials helping understanding of exhibition should be accomplished. Administrative support is essential to be progressed smoothly. For it's sake, Museum should have construct close connection system mutually such in budget support by a prior conference with regional education office. Put a new recognition on importance of education in both cultural and art organs, and prepare joint produce of the ministries of culture and tourism and of education policies for education in art organs.

Preparation of system is urgent to train technical educator as well. If there is an educator in Museum, it can develop programs fitted with it's special qualities then, consistent education will be possibly progressed, but in the case of our country depend on exterior educator, so education program is moment.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setting up facilities for the orders and disabled people, and secure spaces. By reason of their inconvenient in movement and motion, it is not easy to use education program for them with only plan of it. So, environment should be organized by secure movement paths and spaces, and effort need to possess system which is able to make urgent calling in emergency.

In the open space Museum education,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requested progressing a role as a place of lifelong education, through making possible accommodation of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various classes, and by showing it's merits in maximum to give feeling of movement which is form the things real subject impressed. Through this efforts, internal Museum education program will not be behind external's and it will be developed as a distinctive program containing Korean traditions.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program will make a moment becoming closer 'art' and 'public' for people who has no spare time to enjoy cultural composure because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dustry.